

월간

공구



제546호

12

- 04 기획
조종사 비긴즈 I



- 18 그래픽으로 보는 공군
KC-330(Cygnus)



- 10 특집 I
연말정산 이벤트, 가로세로 낱말퀴즈

- 12 특집 II
안녕! 공군 문화예술
VIII. 우리는 모두 예술가입니다

- 15 공군 단신
2023년 제4회 국제군인요리대회
공군 '보라매 식당' 팀 우승!!

- 16 특별기고
은행나무 한 그루가 단풍을 피우기까지

- 20 Aero Detail
미국, 러시아의 항공통제기



- 26 박물관에서 본 세계 공군
세계 공군력 8위, 일본 항공자위대

표지(앞) 세부 기종을 부여받는 하늘이(해리포터 오마주 패러디)(병장 황원진)

발행일자 2023년 12월 1일(통권 제546호)

발행인 공군참모총장 대장 이영수

편집인 공군본부 공보정훈실장 대령 윤영삼

편집감수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미디어콘텐츠과장 중령 김승진

기획·편집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미디어콘텐츠과 대위 이다현

전자도서관 www.afzine.co.kr

디자인·인쇄 국방출판지원단(F23110382)

※ 본지에 게재된 개인 원고 및 인터뷰는 개인의 견해를 알려드립니다.

30	<p>내 옆의 공군인 공사 생도 이야기 『하늘은 나를 향해 열려 있어』 작가 김범수 대위(진)</p>	50	<p>시와 비행하다 겨울나기</p>
		52	<p>트렌드가 보인다 인생을 바꿔주는 공간의 힘</p>
		54	<p>생각하는 그림 타치 위브(Thach Weave)</p>
36	<p>지금 이 순간! 공군 소식 & 참모총장 동정 & 부대 소식</p>	56	<p>공군인의 편지 작별 인사 (미사일방어사 공보정훈실 상병 김종혁)</p>
44	<p>슬기로운 장병생활 사람을 얻는 지혜</p>	57	<p>책 읽는 공군 멋진 신세계를 위하여 (역사기록관리단 북부통합기록관 이병 고현)</p>
46	<p>한 달, 한 권 진정한 기적이란.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p>	58	<p>토닥토닥 기적을 연주하는 피아니스트란 꿈을 향해</p>
48	<p>영화로운 나날 여전히 아름답지만, 더욱 난해해진 세계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p>	59	<p>마음의 소리 독자 참여 코너</p>





조종사 비긴즈 I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의 주역 공군 조종사가 되기 위한 비행교육 과정은 입문, 기본, 고등과정으로 구분됩니다. 즉, 빨간 마후라를 매기까지 약 20개월의 비행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후 세부 기종을 받고, 기종전환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실전 작전 투입은 1년 이상 더 걸립니다.

공군에서 조종 특기로 분류된 인원들은 입관 후 비행환경 적응훈련 초급과정을 수료해야 합니다. 이후 입문과정부터 비행교육을 시작합니다. 그 외 공군과 협약된 대학교에서 비행교육을 받은 후 입관하는 일부 인원은 입문과정을 대체해 교육받은 것으로 인정받아 기본과정으로 바로 입과하게 됩니다. 어느 과정으로 비행교육을 시작하던 기본과정 입과 전에는 생환교육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생환교육훈련 수료 후 제3훈련비행단에서 하는 기본비행교육에 입과합니다. 그래서 제3훈련비행단은 “이곳을 거쳐 가는 이가 조국의 하늘을 지킨다!”라는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¹⁾를 사용합니다.

고등비행교육은 제1전투비행단의 전투임무기 과정과 제3훈련비행단의 공중기동기 과정으로 나뉩니다. 각각의 과정은 주기종을 분류하기 전 1차 분류를 통해 제공권 장악을 위한 공중전, 지상 타격 등 직접적인 공격·방어 임무를 수행 또는, 병력·군수품 보급, 공중급유, 정찰 등 지원 임무를 수행하도록 각각의 특성에 맞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고등비행교육을 수료하면 빨간 마후라를 매는 진짜 공군 조종사가 됩니다.

이번호(12월호)에서는 비행교육체계와 조종사들이 지상에서 하는 대표적인 훈련, 그리고 조종 흉장에 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 선전, 광고 등에서 주의를 끌기 위해 내세우는 기발한 문구나 표어. 비슷한 단어로는 헤드라인, 슬로건 등이 있다.

한눈에 보는 ✈️ ✈️ ✈️ 비행교육체계



전투임무기 과정



KT-100

훈련기간 14주 15회
최대속도 407km/h

T-50

훈련기간 30주 51회
최대속도 1,836km/h

빨간 마후라를 받아요!



수료

입문

기본

고등



공중기동기 과정

KT-1

훈련기간 34주 61회
최대속도 648km/h

훈련기간 23주 33회

LIFT²⁾
전투기
입문과정

TA-50

훈련기간 21주 39회
최대속도 1,836km/h



F-15K



FA-50



(K)F-16



F-4

훈련기간 30주 60회
최대속도 2,938km/h



KA-1

훈련기간 20주 28회
최대속도 648km/h



F-5

훈련기간 24주 47회
최대속도 1,958km/h



(K)F-16

훈련기간 30주 49회
최대속도 2,448km/h



CRT³⁾
전환 및
작전가능훈련

C-130



CN-235



E-737



KC-330



AS-332



HH-32



HH-47



HH-60



2) LIFT(Lead In Fighter Training·전투기 입문 과정): 고등비행교육을 수료한 조종사들이 고성능전투기에 대한 적응능력 증진 및 기본전술을 습득하기 위한 과정
3) CRT(Combat Readiness Training·작전가능훈련): 고등비행교육을 수료한 조종사들이 주기능을 부여받아 기종전환 및 기본전술능력을 습득하고, 작전가능자격을 부여 받기 위해 실시하는 훈련

악천후 등 다양한 비행환경 구현, 모의비행훈련장치

모의비행훈련장치는 지상에서 실제 비행환경과 유사한 비행환경을 조종사에게 제공함으로써 기본적인 비행교육, 비상상황 발생 시 조치훈련 그리고 비행능력 향상 등에 도움을 주고자 개발된 장비입니다. 모의비행훈련장치는 활용목적과 기술적 수준에 따라 크게 SIM(Simulator, 시뮬레이터)과 CPT(Cockpit Procedure Trainer)로 분류합니다. SIM은 항공기에서 수행하는 훈련 및 전술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장비이고, CPT는 항공기 운용에 필요한 지상 및 공중조작 절차에 숙달하는 장비입니다.



16전비 조종사가 FA-50 SIM을 체험하는 공군사관학교 생도에게 설명하는 모습(왼쪽)과 인도네시아 조종사에게 FA-50 CPT를 교육하는 모습(오른쪽)

살아서 돌아오라! 생환교육훈련

‘생환교육훈련’이란 조종사를 포함한 공중근무자가 적지 또는 악조건에서 생존해 우군⁴⁾ 지역 또는 안전지역으로 귀환하기 위해 하는 교육훈련입니다. 산악에서의 ‘전투생환훈련’과 바다에서의 ‘해양생환훈련’이 있습니다.

조종사가 받는 생환교육훈련은 초급/고급/관리자과정이 있습니다. ‘초급과정’은 생환에 필요한 지식을 배우고, 실습하는 최초의 교육훈련 과정으로, 기본비행교육 입과 전에 2주간 진행됩니다. ‘고급과정’은 생환에 필요한 지식·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보수 교육훈련 과정으로 1주간 운영하며, 4년 6개월마다 동·하계 교차로 입과합니다. ‘관리자과정’은 임관일 기준 17년 이상 복무한 조종사가 입과하는 교육훈련 과정으로 2일간 운영됩니다.



산악에서의 ‘전투생환훈련’(왼쪽)과 바다에서의 ‘해양생환훈련’(오른쪽)

4) 우군(友軍): 자기와 같은 편인 군대

조종 훈장의 종류

조종사의 상징은 뭐가 있을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빨간 마후라와 조종복. 이어서 깔끔한 포마드, 보잉 선글라스, 조종 훈장 등이 차례로 떠오릅니다.

훈장은 기록·전문성·숙련도에 따라 부여된 자격을 나타냅니다. 조종 훈장은 조종, 선임조종, 지휘조종으로 총 3종이 있습니다. ‘조종’ 훈장은 국내외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공중근무자로 임명된 조종사가 달 수 있습니다. 즉, 고등비행교육 과정의 수료와 함께 조종 훈장을 달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고등비행교육을 수료한 조종사들은 수료식 때 빨간 마후라와 함께 조종 훈장을 수여받습니다. ‘선임조종’ 훈장은 채용자격 발령 이후, 7년 이상 공중근무하고 1,000시간 이상의 비행기록을 가진 조종사 또는 비행대장 보임자, ‘지휘조종’ 훈장은 채용자격 발령 이후, 15년 이상 공중근무하고 1,500시간 이상의 비행기록을 가진 조종사 또는 비행대대장 보임자 이상이 달 수 있습니다.



왼쪽부터 차례대로 조종/선임조종/지휘조종 금속제 훈장

참고로, 조종사 외에도 공군에는 공중근무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공중근무자들을 위한 훈장도 있습니다. 국내외 교육기관에서 항공의무사, 항공적재사, 항공구조사, 항공무장사, 항공정비사, 항공통신사, 항공촬영사 등의 요원으로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공중근무자로 임명된 항공승무원들은 ‘승무원’ 훈장을 달 수 있습니다. 또, 국내외 교육기관에서 비행군의관/비행간호장교 요원으로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공중근무자로 임명된 비행군의관/비행간호장교는 각각 ‘비행군의관’과 ‘비행간호장교’ 훈장을 달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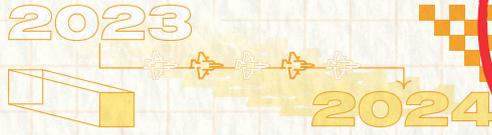


왼쪽부터 차례대로 승무원/비행군의관/비행간호장교 금속제 훈장

※ 다음호(1월호)에서는 공군 조종사가 되는 여러 방법 소개와 조종사들과의 인터뷰를 담겠습니다.

연말정산 이벤트 가로세로 낱말퀴즈

1	2	3	4
5	6	7	8
9	10	11	12



MEMO
정답자 200명 추첨
신년 다이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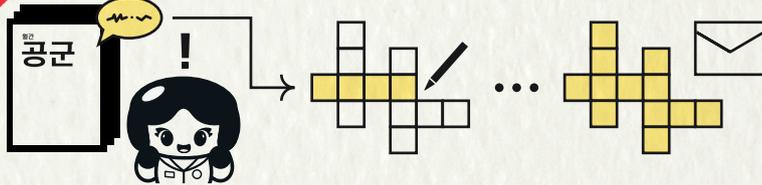
가로

- 1월 3 월간 『공군』 로고 디자인에 쓰이는 2022년에 무료배포한 공군서체
- 6월 5 노백린 장군과 청년혈성단원 6인이 1920년 설립한 대한민국임시정부 한인비행학교
- 10월 6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 3월 9 30주년을 맞은 공군참모총장배 모형항공기대회 of 새로운 이름, '공군참모총장배 ○○○○ ○○○'
- 8월 10 원형의 상징. 각각 공용기가 국제법에 따라 국적 도는 소속을 나타내는 동시에 피아식별을 목적으로 달고 다니는 마크
- 5월 11 2022년 5월 등장한, 2023년 월간 『공군』 표지를 장식한 공군 마스코트들을 어우르는 명칭
- 9월 14 프랑스어로 '오리'라는 뜻으로, 비행기의 동체 앞부분에 있는 작은 날개
- 7월 15 작전이나 훈련 참가를 위한 전투기 전개 비행
- 4월 17 아랍에미리트연합 공군사령부가 주관하는 다국적 연합훈련. 아군 역할의 블루팀과 적군 역할의 레드팀으로 나뉘어
- 6월 다국적 공군이 가상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주·야간 연합공중작전을 수행하는 훈련
- 9월 18 기체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유도로를 통과할 때 기체에 묻은 염분과 오염물질 등을 씻어내고, 작전 수행 중에 가열된 기체를 식혀주기 위한 과정
- 4월 19 2023 호주 애벌론 국제 에어쇼에서 종합 최우수상을 수상한 대한민국공군 특수비행팀 이름

세로

- 11월 1 ATSP(Air Terminal Supply Point) 수복 지역의 열악한 지상 병참선을 극복하고, 신속하고 유연한 재보급을 보장하기 위해 군사 분계선 이북 지역의 수복 비행장이나 비상 활주소에 설치·운영되는 항공수송지원 기지
- 11월 2 꼬리 회전날개 없이 대형 회전날개 2개를 직렬/병렬로 배치하고 서로 반대로 회전하게 해서 동체의 역회전을 억제하는 헬리콥터 구조
- 2월 4 한반도의 평화를 수호하는 감시자, E-737의 별칭
- 10월 7 공군의 발전전략인 '에어포스 퀴텀 5.0'의 5대 프로젝트 중 첫 번째 프로젝트
- 3월 8 ○○ ○○○는 하늘의 사나이~♪ 하늘의 사나이는 ○○ ○○○~♪
- 3월 12 대한민국의 귀중한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충성스러운 기사, F-35A의 별칭
- 4월 13 항공(Aviation)과 전자기술(Electronics)의 합성어로, 항공기, 우주선 및 인공위성에 사용되는 전자 장비나 시스템을 통칭하는 단어
- 12월 16 하늘의 백조, KC-330의 별칭

참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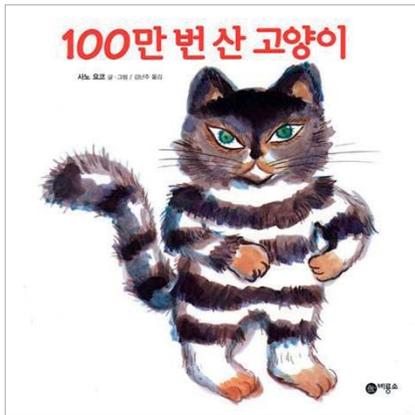
- 공모기간: '23. 12. 22.(금)까지 ① 월간 『공군』 '23년 1월 - 12월호' 속에서 답을 찾고 퍼즐을 채운다.
 결과발표: 공군 SNS ② 월간 『공군』 이메일 (afzine@korea.kr)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정답과 이름, 전화번호, 주소를 함께 보낸다.

※ 택배 발송을 위한 개인정보가 부족하거나 표시가 불분명한 경우 정답자 추첨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안녕! 공군 문화예술

VII. 우리는 모두 예술가입니다



『100만 번 산 고양이』
시노 요코 | 비룡소

아들과 동화책

아이들이 어렸을 때 잠들기 전이면 항상 동화책을 읽어줬습니다. 햇살 좋은 어느 날, 침대 옆 서가에 꽂혀 있던 동화책이 눈에 띄었습니다. 사노 요코라는 일본 동화작가의 『100만 번 산 고양이』*였습니다. 그 책을 읽으려는데 아들이 제 옆에 눕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소리 내어 동화책을 읽었습니다. 자주 읽던 동화책인데, 이날 따라 제 감정이 너무 이입했는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리면서 제가 더 읽지 못하자, 옆에 있던 아들이 자연스럽게 따라 읽더라고요. 저는 아들이 읽어 주는 동화책을 들으면서 계속 울었습니다. 제게는 참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동화책을 읽어준 아들은 제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참을 울다가 동화책을 덮고, 아들을 꼭 안아줬습니다.

마리나 아브라모비치 「예술가가 여기 있다(The Artist is Present)」

영국 왕립예술아카데미에서 개최하는 [마리나 아브라모비치 회고전] 기사를 접하며, 저는 동화책을 읽으며 아들과 말없이 교감하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남녀 누드모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입장하는 행위예술인 「살아있는 작품」을 재연하는 것으로 화제 된 마리나 아브라모비치는 21세기 세계 대중에게 가장 추앙받는 행위예술가입니다. 2010년 뉴욕 현대미술관에서 선보인 작업 「예술가가 여기 있다(The Artist is



출처: BBC NEWS

「마리나 아브라모비치 회고전」 관람객이 입구에 마주 보고 서 있는 누드모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있다.

* 이 책의 주인공 호랑무늬 고양이는 100만 번 죽고 100만 번 다시 태어난다. 모든 이들의 사랑을 받았으나 그 누구도 사랑하지 않았던 이 고양이는 자신이 죽을 때도 늘 태연자약하다. 그러나 어느 생에서, 그 고양이는 처음으로 타자(흰 고양이)를 사랑하게 된다. 두 고양이는 가족을 이루어 오랫동안 함께 산다. 세월이 흘러 흰 고양이도 죽자, 호랑무늬 고양이는 100만 번 운 뒤에 따라 죽는다. 그리고 두 번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예술가가 여기 있다」 작품 중 마리나 아브라모비치가 옛 연인 올라이(Ulay)와 20년 만에 조우하는 장면

Present)」는 평론가들에 의해 뉴밀레니엄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선정됐습니다. 그 작업에서 마리나는 미술관이 열리는 아침부터 문이 닫힐 때까지 꼼짝 않고 앉아 찾아오는 관객과 마주 앉아 침묵으로 소통했습니다. 716시간 동안 이어진 퍼포먼스였고, 미술관을 찾은 관객은 뉴욕 시민보다 많은 85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이 작품에서 마리나는 ‘관계’와 ‘각성’의 과정을 보여줬습니다. 전혀 몰랐던 타자와 눈을 맞추는 것만으로 관객들은 각자의 고통을 나눴고, 마리나를 거울삼아 관객들은 자신의 모습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타인의 눈을 바라보면서 느껴지는 상대와의 완전한 소통과 진실한 교감, 그리고 위로. 예술이 어떻게 관객과 소통할 수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술가입니다

마리나 아브라모비치는 다양한 퍼포먼스를 통해 눈에 선명하게 보이지 않던 것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줌으로써 사회와 관객을 ‘각성’시켰습니다. 그리고 예술가가 해야 할 임무에 대해서도 보여줍니다. ‘뒤상’이 말했듯 예술 작품을 완성하는 것은 대중입니다. 그 때문에 대중없는 행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마리나의 말처럼 ‘예술가와 대중은 상호보완적일 뿐 아니라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술은 사회와 사람들이 있어야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술이나 예술가에 대해서 우리 일상생활과는 거리가 먼 특별한 것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화책을 나누어 읽던 순간 저는 아들과 연결되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한 권의 동화책과 아들의 설명 없는 낭독은 그 순간 제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예술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들은 제게 가장 귀한 예술가였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소소한 삶 자체는 멋진 예술이며, 우리가 모두 대단한 예술가입니다. 나에게 특별한 나만의 물건, 내가 맺는 소중한 관계, 내가 힘주어 살아가는 나의 순간들이 나의 생활에서 예술로 승화되어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국방TV 「위문열차」를 즐기는 5비 장병들(위)과 체육대회를 즐기는 11전비 장병들(아래)

예술가 지휘관

어떤 지휘관이 있었습니다. 그는 대통령님이 참석하는 학교의 졸업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는 몇 달 전부터 학교의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조금씩 학교의 분위기를 정돈해나갔습니다. 졸업식 두 달 전, 본격적으로 행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행사 전반을 기획하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작성했습니다. 행사장을 조성하고 물건을 재배치하며 행사장의 최종 상태를 계속 상기했습니다. 행사 진행 과정을 세심하게 계획한 후에는 순조로운 진행을 머릿속으로 그려봤습니다. 행사 당일 본인의 동선을 떠올리며 매일 저녁 현장을 찾아 직접 시뮬레이션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생각과 행동과 마음은 온통 그 행사에만 집중돼 있었습니다. 대통령님을 모신 졸업식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는 행사를 함께 준비했던 그 어떤 사람보다도 뿌듯해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에는 화보와 백서를 만들어 지난 행사를 정리했습니다. 그 시절이 한참이나 지난 지금도 그는 그때 함께 일했던 사람들을 만나면 그 행사 이야기를 꺼내곤 합니다.



[참고] 제68기 공군사관생도 졸업 및 임관식 사진

군대 의식행사는 명확하게 우리 눈에 보입니다. 의례의 순서와 각각의 목적 또한 분명합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 너머에 보이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붙여넣었을 때 비로소 선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보이는 한 가지 사실만이 아니라 그 사실 속에 숨어있는 다양한 것들, 켜켜이 쌓여있는 층위들을 드러내어 보여주는 것, 이것이 예술가의 역할 아닐까요? 이 지휘관은 내가 만난 어떤 사람보다 ‘예술가’ 같았습니다. 특정한 어떤 것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한순간’을 완성해냈습니다. 예술가는 특별한 집단이 아닙니다. 우리가 각자의 삶 속에서 가진 모든 것을 몰입해 ‘무엇을’ 혹은 ‘어떤 순간을’ 창조해 낼 때, 이렇게 우리는 모두 예술가가 됩니다. 



2023년 제4회 국제군인요리대회 공군 '보라매 식당' 팀 우승!!

- 이벤트 경연 '미스터리 박스' 우승까지

국방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가 공동 개최한 2023년 제4회 국제군인요리대회 본선 경연이 11월 7일(화)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진행됐습니다. 공군방공관제사령부 '보라매 식당' 팀은 우승해 국방부장관상을 받았으며, 이벤트 경연까지 우승하는 쾌거를 거뒀습니다.

'국제군인요리대회'는 조리병의 사기를 높이고, 창의적인 급식 메뉴 개발과 보급, 급식 관련 아이디어 공유의 장을 마련하는 취지에서 2019년 '황금삼 셰프 어워드'란 이름으로 처음 시작한 대회입니다. 올해부터 국제대회로 열리며, 국제군인요리대회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날 미국·싱가포르팀을 포함해 우리 군 공·육·해군, 국방부 직할 부대까지 총 12팀이 본선에 진출해 경연을 통해 실력을 겨뤘습니다.

본선은 간편식 '천의 레시피, 군대리아' 경연과 특식 '군 생활의 달달한 단비, 특별한 요리' 경연으로 진행됐습니다. 또, 경연 시작과 동시에 재료를 공개하는 '미스터리 박스' 이벤트 경연도 열렸습니다. 미스터리 박스 경연은 30분 이내에 면과 통조림 중 골라 조리 후 플레이팅까지 완료해 제출하는 경연입니다. 보라매 식당팀은 파스타 면과 닭가슴살 통조림으로 '로제 닭가슴살 파스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군대리아 경연 '당근나라 치킨버거'

당근 라페와 로메인 상추, 런치 소스, 버터밀크 등이 사용됐다. 고기와 채소 맛이 살아있는 바삭하고 새콤달콤한 군대리아다.



**특별한 요리 경연
'여기 보라매'**

인도 커리를 곁들여 먹는 스페인 쌀 요리 빼에야, 미국 치킨스트립과 프랑스 아이올리 소스, 스페인 스타일의 오믈렛으로 구성된 식단이다.

- | | |
|-------------------|----------------|
| 8357부대 진성루 병장 | 8357부대 병장 이동현 |
| 8357부대 김미리 군무 주사보 | 심사위원 윤희숙 요리연구가 |
| 8498부대 김경민 병장 | 8546부대 한승우 병장 |

* 사진은 연습 때 찍은 사진으로 대회에서 제출한 음식과 플레이팅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은행나무 한 그루가 단풍을 피우기까지

대부분의 일에 있어 처음의 계획이 조금의 변동도 없이 그대로 진행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도서관 리모델링 프로젝트도 초기 계획에서 많이 바뀌었고, 계획수립부터 쉽지 않았다. 한배를 탄 15비 공보정훈실과 공병대대, 그리고 시공업체는 목적지를 향해 전진하며 끊임없이 장애물들과 마주했다. 계획수립, 현장조사, 계획변경부터 매일 같은 출입조치와 인솔, 여러 행정업무, 가구와 조명을 선정하고 배치하는 세세한 부분에 부서의 기본적인 업무까지. 어느 한 부분도 쉽지 않았다.

특히 올해 국군의 날과 ADEX, 즉 공군부대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대 규모 행사 중 두 개나 도서관

공사 일정과 정확히 겹쳐 더욱 험난했다. 그런데도 우리 부서는 내가 한 발이라도 더 뛰려는 헌신과 각자 맡은 일을 완벽히 수행하는 전문성, 적절한 분업과 소통이 빛나는 팀워크로 이 어려운 도전을 성공적으로 해냈다.

이야기의 주인공 한성사랑도서관은 원래 참 모순되고 딱딱한 공간이었다. 벚꽃이 피어도, 눈이 와도 도서관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바깥 풍경을 알지 못했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도서관이 이곳에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허다했다. 공사가 끝난 후, 도서관에 들어올 때 마치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에 나오는 커다란 바오바브나무 속으로 들어간 듯했기에 그 변화 과정을 나무의 사계절로 풀어본다.

겨울. 연간 계획업무에 도서관 리모델링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러나 연이어 겹쳐오는 다른 여러 행사에 도서관 리모델링 공사에 쉽사리 착수할 수 없었다. 한기만 맴도는 도서관의 하루 이용객은 열 손가락으로도 셀 수 있었고, 말 그대로 아는 사람만 아는 두메산골 오두막 같았다.

봄. 행사와 훈련으로 바빠 제대로 열지 못하는 때가 많았지만, 신병들의 관심이 늘어났다. 공모전을 준비하거나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적잖이 있어 공사 착수 전까지 짧지만 굵게 존재감을 과시한 재밌는 공간이었다.

여름. 공사로 문을 닫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열정적이었다. 몇 안 되는 단골손님들은 열렬한 응원을 보냈다. 우린 끊임없이 회의하고 조율하며, 더 좋은 방향이 없는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다.

가을. 한창 귀를 찌르던 매미 소리가 물러갈 즈음 공사 소리도 멎었다. 큰 작업은 끝나고 사소한 정리만을 앞둔 도서관엔 그간의 잡음이 무색하리만큼 운 좋은 일이 가득했다. 원목 가구 제작업체 ‘우드플레이잉’에서 인테리어 컨셉과 도서관 분위



15비 공보정훈실원들과 나민애 교수(오른쪽에서 네 번째)의 단체 사진



서울대학교 나민애 교수의 '책 읽고 글쓰기' 강연 전경

기에 맞는 맞춤 제작 가구가 들어왔다. 또, 재개관 기념으로 '최인아 책방'의 최인아·정치현 대표가 재능 기부 형식으로 도서 큐레이션을 맡아줬다. 마음/성장/인사이트라는 장병 맞춤 세 가지 주제다. 그 중 '함께 일하고 성장하는 길'이란 문구를 내건 '성장' 부분이 가려운 부분을 정확히 긁어준다. '이 단체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지?', '시간을 의미 있게 사용하고 있나?'와 같은 스스로가 결론짓기 힘든 문제 말이다. 그리고 개관식엔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나민애 교수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여해 '책 읽고 글쓰기' 서평 강연을 펼쳤다.

리모델링 후 가장 마음에 든 부분은 창문이다. 보기 좋게 확장된 통창 사이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운영하는 1년 동안 거기 있는지도 몰랐던 은행나무 한 그루가 어느새 셋노란 단풍을 머금고 서 있었다. 난 계속 여기 있었다고 말하는 듯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아름다운 필승로 풍경이 창틀을 타고 쪽 이어져 한 폭의 액자를 보는 듯했다. 그리고 그 옆엔 새로워진 도서관을 응원하는 마음이 모인 나무 한 그루가 단풍 지고 있다.

또, 장병과 군 가족이 소장 도서를 자유롭게 나눔 할 수 있는 '당근 북스' 독서대가 생겼다. 이는 그저 책 나눔터가 아니라 기지 사람들이 겪은 문제들과 해결에 도움 된 것을 서로 나눔으로써 홀로 고민하지 않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

한성사랑도서관이 그저 책 읽는 공간이 아닌, 마음속 깊은 고민을 마주하고, 고민하며, 답을 얻어갈 수 있는 진정한 휴식과 사색의 공간으로 바뀌었음에 뿌듯하다. 처음엔 얼마나 바뀌겠냐 싶었지만 이제 그런 생각을 한 나 자신이 부끄럽다. 도서관 안팎으로 은행나무가 단풍을 피우기까지. 누가 가냐는 도서관에서 누가 먼저 가는지 경쟁하는 도서관으로 변했다. 이제야 제 옷을 입고 빛을 보며 나 여기 있다고, 언제든 쉬러 오라고 외치고 있다. [☑](#)



'최인아 책방'에서 마음/성장/인사이트를 주제로 선정된 추천 도서 서가



통창으로 보이는 은행나무와 필승로

그래픽으로 보는 공군

KC-330 CYGNUS

공군 보유 항공기 중 가장 큰 기체로 '하늘의 백조'로 불린다. 동체 후미에 대형 붐을 장착해 전투기 수유구에 붐을 꽂아 급유함으로써 전투기의 임무반경 확대와 체공 시간·무장 탑재 능력 향상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물자·인원 전략수송 임무도 하는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다. 2020년 한국전쟁 국군 전사자 유해 송환이 첫 해외 임무였으며, 이후 미라클 작전, Pitch Black, 프라미스 작전 등에 투입됐다. 





길이 58.8 m

폭(너비) 60.3 m

높이 17.4 m

최대이륙중량 37,578 kg

항속거리 14,816 km

Aero Detail

미국, 러시아의 항공통제기

美 공군 E-3 센트리 항공통제기

원활한 방공임무를 위해서는 위협의 원거리 조기 탐지가 필수다. 이를 위해 각국은 지상에 레이더 사이트(site)를 설치해 자국의 영공을 감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상에 배치된 레이더는 탐지범위에 한계가 있다. 레이더 전파는 직진성을 지니기 때문에 높은 지형 후방에 있는 표적은 탐지할 수 없고, 수평선 너머에 있는 표적도 탐지가 곤란하다. 이러한 레이더 불포착 지역을 줄이기 위해선 레이더를 최대한 높은 곳에 설치해야 한다. 레이더 사이트가

보통 높은 산 정상에 있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하지만 아무리 높은 산에 레이더 사이트를 위치시킨다 해도 산 높이에는 한계가 있다. 항공통제기는 지형 한계를 극복하고자 아예 고고도를 비행하는 항공기에 장거리 레이더를 탑재한 개념이다.

항공통제기의 역사는 상당히 오래된 편이지만 대중에게 까지 알려진 것은 걸프전 때부터다. 각종 첨단 무기의 전시장 역할을 했던 걸프전에서 美 공군 E-3 항공통제기는 일명 AWACS(Airborne Warning and Control System)라는 이름으로 매스컴을 통해 널리 알려지기도 했다.



대표적인 항공통제기 E-3 센트리

AWACS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로도 번역되지만, E-3 기종의 고유명칭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공중조기경보통제기는 영어로 AEW&C(Airborne Early Warning & Control)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걸프전 기간에 E-3는 총 400회 이상의 비행을 했고, 한 번의 비행에서 통상 16~18시간 채공하며 임무를 지속했다. E-3는 3,000소티에 걸쳐 주·야간 매일 항공기 통제 임무를 시행했고, E-3의 통제 덕분에 연합군 간의 공대공 교전은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연합군 전투기는 걸프전 기간에 이라크군 항공기를 103대 격추했는데, 이는 항공통제기의 원활한 통제 덕분에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미국의 항공작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자산 중 하나가 돼버린 E-3의 탄생은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프로펠러 왕복 엔진을 장착한 항공통제기 EC-121을 베트남전까지 사용한 美 공군은 EC-121의 후속 기종으로 터보제트 엔진을 탑재한 여객기를 고려했다. 美 공군의 요구에 응한 항공기 제작사는 2곳이었으며, 당시 맥도넬 더글러스가 DC-8-63 기종을, 보잉이 B707-320B 여객기를 토대로 한 AWACS형을 제안했다.

美 공군은 보잉과 1970년에 AWACS 개발에 대한 계약을 맺고 개발에 착수했다. 기체보다 중요한 레이더 시스템은 웨스팅하우스의 AN/APY-1 기종이 결정됐다. 순조롭게 개발을 마친 E-3는 1978년부터 전력화돼 미국의 모든 항공작전을 지원하고 있다.

E-3는 동체 위에 로토돔이라 불리는 원반 모양의 레이더 안테나를 탑재해 다른 항공기와 외형상 쉽게 구분된다. 서서히 회전하는 이 로토돔 덕분에 E-3는 저고도 표적에 대해서 최소 400km 이상의 탐지거리를 가지며, 중고고도 표적에 대해서는 좀 더 먼 거리에서 탐지할 수 있다. 그리고 탐지범위 안의 600개 표적을 탐지해 그중 200개 표적에 대한 식별과 추적이 가능한 성능을 갖고 있다.

이러한 우수한 성능 덕분에 E-3는 미국 외에도 NATO 국가가 다수를 운용하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 영국, 프



1분에 6회 회전하며 공중표적을 탐지하는 로토돔 레이더 안테나

랑스 등에 수출돼 서방측의 대표적인 공중조기경보통제기가 됐다.

향후 美 공군은 E-3를 E-7으로 2027년부터 대체할 계획이다. 가장 대표적인 항공통제기로 명성이 높았던 E-3는 2030년대에 점진적으로 퇴역할 예정이어서 E-7이 E-3의 위상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美 해군 E-2 호크아이

E-2 호크아이 조기경보기는 처음부터 공중 조기경보 목적으로 개발된 유일한 항공기다. 널리 알려진 E-3 AWACS, E-737, E-767, A-50 등 다른 조기경보기는 기존에 개발된 여객기나 수송기 플랫폼에 대형 레이더를 탑재하는 개조를 거쳐 탄생했다. 반면 E-2 호크아이는 처음부터 美 해군의 항공모함 운용 사양에 맞춰 개발됐다는 것이 다른 조기경보기와의 차이점이다.

최초의 항공모함 탑재 공중 조기경보기 역사는 제2차 세계대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美 해군은 1943년에 프로젝트명 캐딜락 I 계획에 따라 TBM-3W 어벤저를 개발해 항모용 공중 조기경보기로 활용했다. 이 프로젝트는 美 항모에 대한 일본의 가미카제¹⁾ 공격을 조기에 경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후 PB-1W나 TF-1W(WF-2)가 항모모

1) 가미카제(カミカゼ): 신풍(神風, 신무). 태평양 전쟁 말기에 일본군이 연합군 함대에 시도한 비행기 자폭 테러 전술과 이를 위해 조직한 특공대를 이르는 말



美 해군의 최신형 항공통제기 E-2D 어드밴스드 호크아이

함 방공을 위해 사용됐지만, 성과는 크지 않았다. 미 해군은 해상 공중 위협에 대한 탐지 능력 강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1955년에 차세대 공중 조기경보기에 대한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이 요구사항에는 탐지범위를 확대하고, 우수한 항속 능력을 갖추며, 공중 전술 자료 처리 시스템도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이 포함돼 있었다. 그리고 협소한 항공모함 환경을 고려해 폭이 좁은 승강기나 천장이 낮은 항공모함 격납고에서도 운용이 가능할 것을 명시했다.

새로운 신형 조기경보기 개발에 가장 적극적인 제작사는 전통적으로 미 해군에 함재기를 공급한 그루먼이었다. 그루먼은 이미 최초의 조기경보기부터 E-1 트레이서까지 미 해군용 조기경보기를 납품했었다. 신형 조기경보기의 제작사는 그루먼으로 1959년에 최종 결정돼 E-2 호크아이 개발이 시작됐다.

초기형인 E-2A는 1964년부터 일선 항공모함에 배치됐다. 1965년부터는 베트남전에 투입돼 실전에서의 평가를 받기도 했다. 통킹만의 무더운 날씨 때문에 E-2A의 전자장비는 잦은 고장을 일으켰고, 1967년부터는 신뢰성이 향상된 E-2B 사양으로 개량됐다.

1971년부터 2010년대까지 장기간에 걸쳐 운용된 호크아이는 E-2C형이다. E-2C는 AN/APS-145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다. 이 레이더를 통해 E-2C는 수평선 너머의 표적을 560km까지 탐지할 수 있다. 그리고 약 2,000개 이상의 목표를 자동으로 탐지 추적하며, 40개 이상의 목표

를 동시에 요격 관제할 수 있는 성능을 보인다.

배치되자마자 베트남전에서 성과를 거뒀던 E-2 호크아이는 이후 미 해군이 개입한 모든 항공전에 투입됐다. 1986년에는 리비아 공격을 위한 엘도라도 캐년 작전에서 F-14 전투기의 전투공중초계를 지원했고, 걸프전과 코소보전, 이라크전에서도 수많은 미 해군의 공습작전을 통제했다. 이스라엘에 수출된 E-2C는 1982년 베카계곡 전투에 투입돼 이스라엘 공군의 일방적인 격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

2010년대부터 E-2C 호크아이는 E-2D 어드밴스드 호크아이로 진화했다. E-2D형은 시대 흐름에 맞게 능동전자주사 배열 방식인 AN/APY-9 신형 레이더와 새로운 엔진, 각종 신형 항공전자장비를 갖추고 있다. E-2 호크아이는 처음 개발이 시작된 지 반세기가 넘었지만, 지속 개량되고 있어 미 해군 항모 기동부대의 눈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美 공군 E-8 조인트스타즈

E-8은 하늘에서 전장을 손금보듯 내려다볼 수 있는 무기 체계다. E-8은 합동 감시 표적 공격 레이더 체계를 의미하는 J-STARS(Joint Surveillance Target Attack Radar System) 또는 조인트스타즈로 흔히 알려져 있기도 하다.



비행중인 E-8C 조인트스타즈



지상 감시용 특수 레이더가 기수 동체 아래에 카누 모양으로 튀어나와 있다.

노스롭 그루먼 사가 특별히 개조한 E-8의 원형은 보잉 707 여객기다. E-8은 넉넉한 내부 공간에 승무원 공간을 확보하고, 동체 아래에 카누 형태의 특수 레이더를 설치해 250km 밖에 떨어져 있는 지상 표적들을 추적하고 식별해 낼 수 있다.

최초의 E-8 개발 계획은 1983년부터 시작됐고, 1987년부터는 보잉 707 개조 작업을 시작해 1988년 12월에 초도비행을 마쳤다. E-8은 지상의 건물이나 다리 또는 지상 장애물의 정확한 위치를 영상으로 나타낼 수 있다. E-8의 기본적인 임무는 전방에 있는 위협요소들을 지상 지휘관들이 사전에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또한, 지상 지휘관에게 실시간에 가까운 영상 정보나 자료를 전송해 전장에 대한 상황판단을 지원하고, 아군 조종사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E-8에는 지상군뿐만 아니라 항공 전력의 원활한 통제와 연합작전을 위해 美 육군과 美 공군 소속의 승무원이 함께 탑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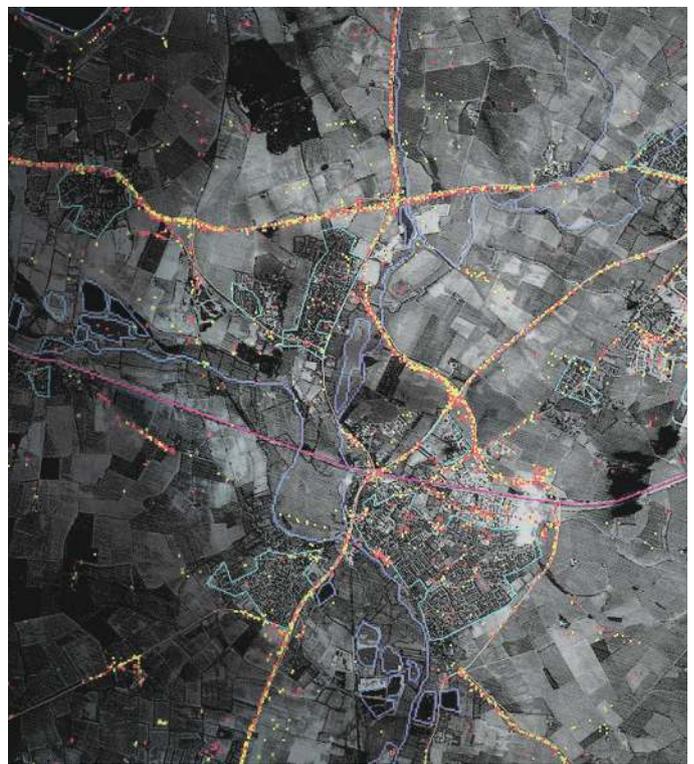
E-8은 11시간 동안 전장에 체공하며 임무 수행이 가능하고, 공중 급유를 받으면 최대 29시간까지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 장기 체공 임무를 위한 표준 승무원 수는 21명이나, 추가 임무가 부여되면 최대 34명까지 탑승할 수 있다.

E-8은 이동 표적 지시 기능을 가진 합성개구레이

더(SAR: Synthetic Aperture Radar)를 탑재하고 있다. 레이더로 포착된 지상 목표물은 데이터링크를 통해 외부로 전송된다. 전장관리는 기내의 조작사가 18개 콘솔을 통해 조작한다. E-8은 다수의 워크스테이션과 고성능 통신장비를 보유해 공중 지휘소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다. 하늘에 떠다니는 공중 지휘소인 만큼 수집된 전장 자료가 바로 외부로 전송되는 것은 아니고 기내에서 데이터를 융합해 분석 처리한 후 데이터링크로 전달한다. 또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지휘관과 조작사

는 우선순위가 높은 표적을 공격하기 위해 미사일, 항공기 등을 효과적으로 직접 할당 및 지정할 수 있다.

E-8의 첫 데뷔 무대는 걸프전이었다. 걸프전에는 2대의 E-8A형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전개해 49소티(530시간)를 비행했다. 당시 E-8은 개발단계에 있어 미군의 정식 무기 체계에는 포함되지 않은 상태였다. 걸프전에서 E-8은 이



항공사진에 지상이동표적을 표시한 E-8 내부 콘솔 영상

라크 지상군의 대규모 움직임은 거의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었으며, 모니터링 정보는 지휘통제뿐만 아니라 아군의 오인사격을 방지하는 데도 매우 유효했다. 특히 E-8은 이라크 지상군의 이동상황뿐만 아니라 이동형 스커드²⁾ 발사대에 대한 아군의 공중공격을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하면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았다.

보스니아에서는 2대의 E-8A와 1대의 E-8C가 조인트 엔데버 I 작전에 참여해 협약 준수 여부 감시, 영국군, 프랑스군 및 미군에 대한 직접지원 임무를 수행했다. 또한, 후속 작전에서도 2대의 E-8C가 공중공격 지원을 위한 감시 및 추적 임무를 수행하는 등 미군의 핵심 무기체계로 사용됐다. E-8 조인트스타즈는 여러 전장에서 활약하면서 그 가치를 입증했지만, 기술발전이 따라 위성, 지상 레이더 네트워크, E-7과 같은 타 항공기의 센서를 사용해 임무 대체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E-8은 2024년까지 모두 도태돼 곧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러시아 A-50 메인스테이

세계 항공통제기 시장은 미국이 거의 독점하는 양상이다. 서방측에서는 이스라엘과 스웨덴이 일부 기종으로 경쟁하고 있지만, 독자개발 플랫폼이 부족해 한계가 있

다. 그러한 측면에서 미국과 경쟁을 할 수 있는 국가는 러시아라고 할 수 있다. 러시아는 베리에프 설계국이 설계한 A-50 메인스테이(Mainstay)와 개량형 A-50U 공중조기경보기로 미국과 경쟁하고 있다.

러시아가 항공통제기에 관심을 두게 된 것은 1950년대 구소련 시절부터다. 1960년에는 Tu-114를 개조한 Tu-126 조기경보통제기 개발을 시작해 서방측에 포착된 적이 있다. 나토가 코드명 모스(Moss)로 명명한 Tu-126은 실전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1971년 인도-파키스탄 전쟁에 참여해 인도 공군을 지원하기도 했다.

Tu-126의 후속 기종이 바로 A-50이다. A-50은 Il-76 수송기를 기반으로 탄생한 공중조기경보기다. A-50 초기형에 탑재된 전자장비는 중량이 매우 무거워 항공기에 연료를 가득 채울 수 없었다. 승무원은 15명이 탑승하지만 Tu-126에도 있었던 화장실, 휴게공간을 없애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는 단점이 있었다.

A-50에 탑재된 쉬멜(Shmel) 레이더는 S-밴드(2~3GHz)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한다. 동체 위에 있는 원반형 안테나는 분당 6회전의 속도로 서서히 회전하며, 무선통신과 디지털 데이터링크를 이용해 전투기를 통제한다.

쉬멜 초기형은 과부하와 신뢰성에 문제가 있었지만 쉬멜-2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했다. 러시아측은 쉬



러시아 공군의 A-50U 항공통제기

2) 스커드(Scud): 냉전시절 구소련이 개발해 제3세계 많은 국가에 판매한 탄도미사일의 이름으로, NATO에서 명명한 일종의 코드네임이다. 미국에서는 서방에서 개발되지 않은 모든 탄도탄을 일컫기도 한다.



인도 공군도 운용하는 A-50E 메인스테이

멜-2 레이더가 미국의 E-3 공중조기경보통제기에 탑재된 레이더와 성능 면에서 유사하다고 주장한다. 수출형 쉬멜-2는 동시에 10~30대의 전투기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다.

러시아의 A-50은 걸프전 당시 직접 개입하지는 않았으나 흑해 상공을 교대로 비행하며 터키 기지로부터 발진하는 전투기와 해상 선박, 순항미사일을 감시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임무 종료 후 러시아 측 자체 평가에 의하면 A-50은 서방측의 E-3와 비교해 탐지거리와 처리능력이 부족하지만, 하방 탐색능력과 인공위성을 이용한 정보 전송에 우위가 있다고 평가했다.

A-50의 운용국은 러시아 공군을 제외하고 인도가 유일하다. 쉬멜을 탑재하지는 않았지만 Il-76 플랫폼을 이용한 조기경보기는 이라크와 중국에서 개발됐다. 이라크는 1980년대에 Il-76MD를 개조해 프랑스의 타이거 G 감시 레이더를 탑재한 공중조기경보기를 개발했다.

중국은 이스라엘의 도움으로 공중조기경보기를 개발하려 했지만, 미국의 압력으로 계획이 무산됐다. 하지만 러시아로부터 도입한 Il-76MD 플랫폼에 자체 개발한 위상배열 레이더를 탑재해 KJ-2000이라는 이름으로 운용하고 있다.

러시아는 A-50의 기존 레이더를 신형으로 교체하고, 화장실, 휴게공간을 갖춘 A-50U를 2010년대에 생산했다. 그리고 탐색능력이 크게 향상

된 능동전자주사 배열 레이더 탑재형 A-100 항공통제기를 개발해 2020년대 중반부터 기존 A-50을 점진적으로 교체해 나갈 계획이다. [\[4\]](#)



러시아 공군은 향후 A-100 항공통제기를 운용하게 될 것이다.



임상민 박사

한국항공대에서 학사/석사/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국방기술품질원(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연구 및 개발을 맡았으며, 현재는 방위사업청 항공분야 전문관으로 항공무기 획득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전투기의 이해』, 『항공기 체계 효과도의 이해』 등 8권 저술, 1993년부터 항공/군사지, 항공/군사학회 등에 수백여 편의 원고 및 논문을 기고했다.



박물관에서 본
세계 공군

세계 공군력 8위, 일본 항공자위대

일본 열도는 4개의 큰 섬(홋카이도, 혼슈, 시코쿠, 규슈)과 6,800여 개의 작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인구 1억 2,600만 명, 국토면적은 약 37.8만km²로 한반도의 1.7배다. 연 국민개인소득은 43,000달러 수준이며, 재일 한인 동포는 약 82만 5천 명(재외동포 45만, 귀화자 37.5만)이다. 일본 자위대는 247,150명(육상 150,700명, 해상 45,350명, 항공 46,900명, 방위성 4,200명)의 병력과 준 군사부대 14,350명, 예비군 56,000명을 보유하고 있다. 자위대는 75%가 부사관·장교로 구성돼, 유사시 신속한 병력확장이 가능하다. 또한, 55,300명의 미군(육군 2,500명, 해군 20,100명, 공군 12,700명, 해병대 20,000명)이 일본에 주둔하고 있다.



일본 후쿠오카 시내 전경

하늘 역사를 증언하는 항공기념관

일본 열도는 상상보다 넓고 길다. 규슈 남단 가고시마에서 도쿄까지는 1,500km, 홋카이도 북쪽 끝 왓카나이까지는 2,800km에 달한다. 오키나와를 포함하면 4,000km로 길게 뻗은 섬나라다. 도쿄와 시외 근교에는 일본군 발전과정을 알 수 있는 부대주둔지·박물관·기념비 등이 많이 남아있다. 도쿄에서 열차로 1시간 달리면 도쿄로자와 하늘공원역이 나온다. 이 도시가 일본 항공의 발상지다. 역사(驛舎) 건너편에 1962년 10월, 자체기술로 제작한 YS-11 여객기가 방문객을 맞이한다. 옛 일본군 항공학교와 미군 보급부대 주둔지는 하늘공원으로 변했다. 잔디밭에는 청·백군 모자를 쓰고 소풍을 온 유치원생들이 병아리 떼처럼 웅기종기 모여있다. 릴레이 시합에서 달려던 꼬맹이가 다음 선수 대신 응원하는 엄마에게 달려가 배턴을 건넨다.



도쿄 근교의 하늘공원역 앞에 전시된 일본산 YS-11 여객기(왼쪽)와 항공기념관 입구의 넓은 정원에서 야외행사 중인 어린이들의 모습(오른쪽)

항공기념관 천장에 매달린 ‘회식 1호’ 비행기는 1911년 일본이 처음 만들었다. 1903년 미국이 최초 동력 항공기를 개발하고 8년이 지난 후 도쿄로자와에는 비행장·항공학교·정비장이 들어섰다. 일본의 항공기술은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다가, 1941년 12월 7일 제로센(영식 전투기) 편대가 진주만을 공습했다. 미국·영국·독일 등 그 어떤 나라 전투기도 제로센 기동력을 따라갈 수 없었다. 도쿄의 요요기 공원에는 항공부대 창설기념비가 있다. 광활한 연병장은 우거진 수목과 호수로 변했고, 이런 역사유적에 대해 아는 시민은 거의 없었다.



일본 항공기념관에 전시된 항공기들의 모습(왼쪽)과 도쿄 근교 도쿄로자와의 일본군 항공정비학교 전경(가운데), 도쿄 요요기 공원의 일본군 항공부대 창설기념비 전경(오른쪽)

군 의료인력의 산실 방위의과대학교

항공기념관에서 멀지 않은 곳에 방위의과대학교와 대학 병원이 있었다. 시내에서 가장 높고 큰 건물이다. 1800년 대부터 술한 전쟁을 경험한 일본은 의료인력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 정부는 1974년 4월 개교한 이 학교 설립 취지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자위대 군의관은 정원 818명 중 278명(충족률 34%)에 불과하다. 학년 정원 80명의 6년 과정 의과대학을 설립하여 군의관 양성이 필요하다. 1,000개 병실, 교수급 의사 230명, 스태프진 1,300명을 갖춘 종합병원을 건립하고, 졸업생의 의무복무기간은 9년으로 한다.”라고. 의과대학교 부설 고등간호학원도 1975년에 개설했다. 29만㎡의 넓은 부지에 최신 시설을 갖춘 이 학교 설립으로 자위대는 안정적인 의료인력 충원 체제를 갖췄다. 미국은 국방의과대학원(워싱턴), 러시아는 국방사관학교(상트페테르부르크)를 가지고 있다.



일본 자위대의 방위의과대학 병원 전경

한국전쟁 당시 F-51D 인수장소 후쿠오카 공항

후쿠오카는 서울에서 매일 항공편이 오가는 인구 160만 명을 가진 규슈의 도시다. 특히 후쿠오카(이다즈께) 비행장은 한국전쟁 당시 한반도에 최초로 파병된 미군 스미스 기동부대의 출정지다. 또한, 1950년 7월 3일 한국공군이 처음으로 F-51 무스탕 전투기 10대를 미군으로부터 인수한 곳이기도 하다. 후쿠오카 공항청사는 매일같이 한국 관광객들로 북새통이다. 이 공항 한편에 한국공군 최초의 전투기 인수와 美 스미스 기동부대 이야기를 소개하는 작은 표지판 하나라도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일본 후쿠오카(이다즈께) 공항 전경

일본인들이 세운 유엔군 전몰장병 추모비

한국전쟁 당시 일본 열도의 많은 비행장에서 유엔 공군기들이 출격해 북한지역을 강타했다. 특히 한반도에서 가까운 후쿠오카(이다즈께) 비행장은 매일같이 미군 전투기들의 이착륙이 그칠 사이가 없었다. 가끔 공산군 대공포에 피격돼 흰 연기를 뿜으며 가까스로 후쿠오카로 귀환하는 미군기도 있었다. 미처 활주로에 착륙하지 못하고 바다에 추락하는 항공기가 있으면 주민들이 황급히 조종사의 구조를 위해 작은 배를 몰고 나가기도 했다. 1953년 6.25전쟁이 끝난 후, 후쿠오카와 가까운 아다치 산정에는 지역 주민들에 의한 유엔군 전몰장병 십자가 추모비가 건립됐다.



후쿠오카 근교 아다치 산정의 유엔군 전몰장병 추모비 전경



후쿠오카 향토박물관에 전시된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 갑옷



후쿠오카 향토박물관에 전시된 태평양전쟁 당시 화재진압시의 머리보호 장구

후쿠오카 향토박물관의 전쟁역사

후쿠오카 타워 근처의 향토박물관에는 전쟁역사가 잘 정리돼 있다. 이 도시는 한반도와 고대부터 활발한 무역 교류가 있었지만, 일본의 대륙침공 발진기지이기도 했다. 후쿠오카 중앙역이 있는 하카다는 임진왜란 당시 군수물자 집적소였다. 전시실에는 왜군진격로, 동래성, 거북선, 무기류가 진열돼 있다. 또한 태평양전쟁 시기 비참했던 시민생활도 생생하게 소개한다. 1944년 6월 15일, 최초로 미군 B-29가 북규슈를 공습했다. 항속거리 7300km, 고도 1만m 상공을 비행하는 신형폭격기의 소낙비 같은 폭탄 세례에 일본군은 속수무책이었다. 불길을 잡기 위해 물에 적신 형겁 보호대를 쓴 시민들이 필사적으로 불길을 잡곤 했다. 한국의 향토박물관에서는 이런 과거의 전쟁역사를 보여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 ‘전쟁’을 언급하는 자체를 기피하는 한국 특유의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다. □



신종태 교수

2010년 국내 최초로 충남대에서 군사학박사를 취득했다. 충남대·국군간호사·조선대에서 전쟁사를 강의하면서, 세계 60여 개국의 군사박물관과 전쟁유적지를 답사했다. 현재도 계속 답사여행을 하면서 『세계의 전쟁유적지를 찾아서』 시리즈를 발간하고 있다.

내 옆의 공군인

제54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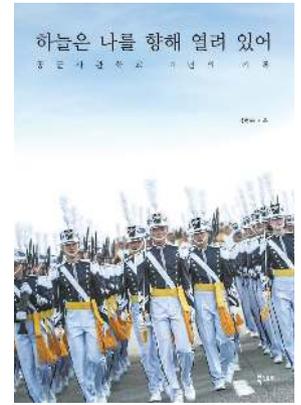
공사 생도 이야기

『하늘은 나를 향해 열려 있어』

작가 김범수 대위(진)



필승! 저는 공군사관학교(이하 공사)를 제69기로 졸업 및 임관하여, 제39비행단 제296비행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범수 대위(진)입니다. 저는 군인이란 직업 외에도 합법적인 직업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작가’입니다. 저는 작년 5월, 4년간의 생도 생활을 담은 책 『하늘은 나를 향해 열려 있어』를 출간했습니다. 제가 서점의 ‘Best Seller’ 코너에 책을 올리는 유명 작가는 아니지만, 작가로서 월간 『공군』 구독자들에게 저와 제 책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도서 『하늘은 나를 향해 열려 있어』 표지

독서와 글쓰기

책을 출간했다고 말하면, 모두 다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독서를 즐긴 줄 아십니다. 지금은 독서를 좋아하지만, 어릴 때는 삼국지, 그리스로마신화조차 읽어본 적 없을 정도로 책과 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글은 종종 썼습니다. 삶과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고민하고, 글로 쓰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김범수 대위(진)가 공군사관학교 생도 시절 수상한 하늘문화상 상장 모음

글을 쓰는 시간은 어느 때보다 솔직한 ‘나’를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제 글을 읽은 사람들은 “네가 쓴 글이라고?” 하며 놀라곤 했습니다. 교내 문학상이나 글짓기 대회에 출품해 온 좋게 가끔 수상하며 글 쓰는 것이 더 좋아졌습니다. 공사신문사 기자 생도로서 정기적으로 글을 썼고, 생도 생활 내내 문화(사진, 작문) 관련 상만 6개를 수상했습니다. 요즘도 가끔 공사신문이나 국방일보에 기고하고 있습니다.

집필 배경

“힘들 때 글이 잘 써진다.”란 말처럼 제 책도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친구들과 다양한 경험을 하는 데서 활력을 찾던 저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외출·외박이 무기한으로 제한되면서 무기력해졌습니다. 무기력함은 생도 생활에 대한 회의감으로 이어졌고, 우울감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다른 생도들은 외국어 공부나 보디 프로필 촬영 준비 또는 새로운 취미를 가지며 제한된 환경 속에서 무언가를 찾아 몰두했습니다. 그들과 비교하며 제가 정신적으로 나약한 존재라고 느꼈습니다. ‘최고학년인 내가 이렇게 힘든데, 후배들은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생도 생활 중 회의를 느낄 수 있는 순간들을 후배들과 공유하며 조금이라도 위로를 주고 싶었습니다.

“괜찮아. 너만 그런 거 아니야. 나도 그랬어. 그리고 이로써 너는 분명히 성장할 거야!”

집필 과정

후배들에게 들려주고픈 내용을 담기 위해 ‘생도 생활’ 전체를 담게 됐습니다. 사실 생도 생활은 ‘공사신문’이나 ‘대한민국공군’ Youtube에서 자세히 볼 수 있는데, 그런 매체에서 비추는 것이 누군가의 객관적인 ‘현상’이라면 저는 책에 저의 주관적인 ‘성장통’을 담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A4 용지로 백여 쪽 분량의 원고가 만들어졌고, 뜻이 맞는 출판사를 만나 출간계약도 이뤘습니다. 만약 출판계약을 못 했더라도, 잘되어 있는 자가출판 플랫폼을 활용해 사비를 들여서 출간했을 것 같습니다. 책을 출간하기 위해 보안성 검토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했는데, 많은 분께서 도와주셔서 제 책이 무사히 세상에 나올 수 있게 됐습니다.



월간 『공군』 담당자와 인터뷰 중인 김범수 대위(진)

‘하늘사랑 장학재단’에 기부한 배경

저는 읽을 책을 고르는 기준이 좋은 글이거나, 아니면 좋아하는 작가의 책이거나 이렇게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책을 구매할 분들은 이 두 가지가 아닌 ‘공군사관학교’를 사랑하는 애교(愛校)의 마음, 공군을 사랑하는 마음, 더 크게는 애국(愛國)의 정신으로 제 책을 구매하시는 거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쓴 글이지만, 그런 독자들의 고결한 마음이 담긴 인세를 사적으로만 쓴다면 공군인으로서 너무나 부끄러울 것 같았습니

다. 그래서 초판 인세 전액인 백오십만 원을 출판사로부터 선지급 받아 의미 있는 곳에 기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출간을 준비하던 중 2022년 4월 1일에 KT-1 공중충돌로 존경하는 교수님 두 분과 사랑하는 두 동기생이 순직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순직 공군 조종사 유가족 후원재단 ‘하늘사랑 장학재단’에 기부하기로 정했습니다. 아직 초판도 다 팔리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몇 췌가 더 팔려 인세가 들어온다면 또 기부하고 싶습니다.



하늘사랑 장학재단에 기부할 때 들고 촬영하는 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기념촬영은 하지 못했다.

기억에 남는 독자와의 일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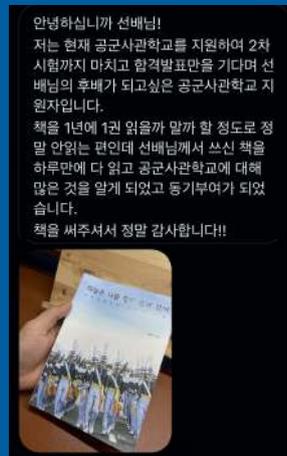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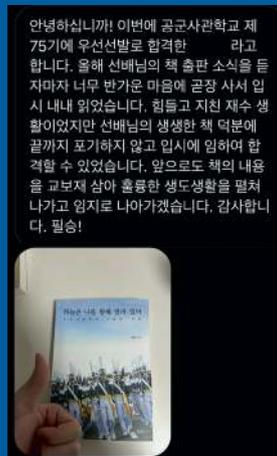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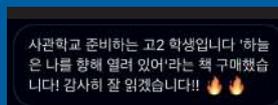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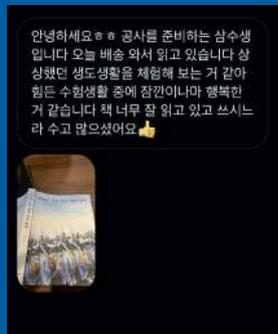
출간 소식을 접한 많은 선·후배·동기분들께서 책을 구매했다면서 다양한 경로로 축하해 주셨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반가웠던 것은, 다름 아닌 두 공군 병사가 보내준 인트라넷 메일과 문자메시지였습니다.

메일을 보낸 병사는 공군으로 입대해 군 복무를 하면서 학창 시절 이루지 못했던 ‘공군사관생도’라는 꿈을 다시 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꿈에 대한 집념만으로 바쁜 일과 중 틈틈이 공부하는 것은 그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친 자신을 일으켜 세울 동기부여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던 중 제 책을 읽게 됐고 공군사관생도가 되겠다는 목표를 넘어 어떠한 사관생도가 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수립하며 꿈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말해줬습니다. 작가로서 엄청 보람찬 순간이었습니다.

문자메시지를 보낸 병사는 제가 기본 비행교육을 받고 있을 때 같은 부대에 있던 병사였습니다. 조종사와 항공기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공군사관학교에 관심이 생겨 제 책을 읽게 됐는데, 같은 부대인 것을 알고 반가운 마음에 더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어 연락했다고 합니다. 이를 계기로 인연을 맺어, 부대에서 종종 만나 생도/학생조종사 생활에 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제75기 공군사관생도 선발부터 전역 군인의 입학 나이가 상한 연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책의 출간이 우연히 이와 맞물려, 군 복무를 하며 공군사관생도를 꿈꾸게 된 병사들에게 도움을 준 것에 큰 기쁨을 느낍니다.

그런데 병사들이 사비로 책을 구매하거나 기지도서관에 도서를 직접 신청해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훗날 제 책이 진중문고에 선정돼 더 많은 병사가 접하며, ‘공군사관생도’라는 잠시 접어두었던 꿈을 다시 펼치거나 새로운 꿈을 갖길 바라봅니다.



독자들이 SNS로 보낸 메시지 일부 모음

출간 후일담과 앞으로의 계획

우선 첫 번째로 표지 사진에는 제가 없습니다. 다들 표지 가운데 인물이 저인 줄 아시더라고요(웃음). 자서전이 아니기에 제가 담기지 않은 사진 중 표지는 동기들이 잘 나온 사진으로 골랐습니다.

주위의 많은 분이 혹시 '2권'이나 '확장판'을 쓸 계획이 있냐고 묻곤 합니다. 학생조종사로의 기간도 2년이 넘어 적어도 한 챕터[Chapter, 장(章)]는 쓸 수 있을 정도로 할 이야기가 많지만, 당장은 조종사로서의 본분에 집중하려 합니다.



고등비행교육 과정 수료식 날 촬영한 김범수 대위(진)의 가족사진

독자들에게 한마디

개인적으로 속마음을 누군가에게 잘 드러내지 않는 성격인데, 책에는 혼자 끙끙 앓았던 어려움이나 이기적인 생각과 행동, 고민과 실패담까지 모두 솔직하게 담았습니다. 제 모든 민낯과 속살을 주위 사람들에게 들키는 기분이라 부끄럽습니다. 또, 생도 생활을 너무 많이 스포일러(spoiler)*한 것 같습니다. 예비생도에게 너무 많은 스포일러를 한 바람에 제가 경험한 지도생도로서의 행복을 후배 생도들이 느끼지 못하게 했다는 것에 죄책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심심한 사과의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저는 공군사관생도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공군사관생도가 제 책의 '생도 김범수'로 일반화되지 않을지 심히 걱정됩니다. 같은 경험을 해도 사람마다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어쩌면 어떤 'A'라는 경험에 대해 'B'라고 생각한 사람이, 모든 생도 중 저 혼자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일부 내용에 관해 '감히 생도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라고 느끼신다면, 제 개인의 문제로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이 글은 100% 제 개인의 경험과 생각을 쓴 글입니다. 공군사관생도의 이야기가 아닌,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한 김범수의 이야기로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스포일러(spoiler): 영화, 소설, 애니메이션 등의 줄거리나 내용을 예비 관객이나 독자 특히 네티즌에게 미리 밝히는 행위나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

E-Book 자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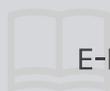
매월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월간『공군』

E-Book으로 월간『공군』을 만나면 **환경보호까지!**

창간호부터 최신호까지 모두 만날 수 있습니다.



공군지를 온라인에서
afzine.co.kr



E-Book 열람은 물론 구독 신청,
구독 취소, 주소 변경도 가능합니다.
편집실에 전할 이야기와 제보는
'독자 의견'으로 보내주십시오!

접속방법 (택1)

검색사이트에서 '공군지' 혹은 '월간 공군'을 검색하세요.
스마트폰 카메라로 **QR코드**를 찍어보세요.
주소창에 afzine.co.kr을 입력하세요.



한미 연합공중훈련 '23년 Vigilant Defense 시행

10월 30일(월)부터 11월 3일(금)까지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인 '23년 비질런트 디펜스(Vigilant Defense)를 시행했다. 공격편대군, 방어제공, 근접항공지원 등 주요 항공작전 임무를 24시간 수행하며 전시 작전수행절차를 숙달하고 지속 작전 능력을 점검했다. 훈련에는 우리 공군의 F-35A와 E-737, KC-330, 미군의 F-35A, F-35B, FA-18, KC-135 등 한미 항공전력 130여 대가 참가했다. 사진은 우리 공군 F-35A가 X-INT* 훈련하는 모습이다.

* X-INT(X-Interdiction, 공중대기항공차단)는 계획된 시간에 정해진 지점 상공에 항공전력을 공중 대기시킨 후 식별된 표적을 타격해 후속 제대의 전방투입 및 지원을 저지시키는 항공차단 임무 중 하나다.





2023 한미 연합공중훈련의 이모저모

2월 19일(일) 美 F-16 4대와 B-1B 전략폭격기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OCBM) 도발에 대응해 연합공중훈련을 하고 있다.



3월 6일(월) '23년 전반기 연합연습 개시에 맞춰 F-15K, KF-16과 미 B-52H 전략폭격기가 서해상공에서 연합공중훈련을 하고 있다.



'23년 전반기 연합연습 기간 중 3월 19일(일) F-35A와 美 F-16, B-1B가 연합공중훈련을 하고 있다.



3월 3일(금) KF-16과 美 B-1B가 서해 및 중부내륙 상공에서 연합공중훈련을 하고 있다.



7월 28일(금) 17전비 소속 F-35A 3대가 한미 연합공중훈련인 쌍매훈련에 처음 참가해 편대비행을 하고 있다.



8월 21일(월) 20전비 소속 KF-16이 한미 연합연습과 함께 실시된 방어제공훈련을 위해 이륙하고 있다.



공군 지휘관 회의

이영수 참모총장은 11월 1일(수), 공군본부 대회의실에서 참모총장 지휘의도를 공유하고 현 안보 상황에 따른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기 위한 공군 지휘관 회의를 화상(VTC)으로 주관했다. 참모총장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 강력한 항공 우주력 건설, 건전한 조직문화 형성, 최상의 연합·합동 방위태세 구축, 합동성과 책임감을 갖춘 우수 인재 양성 등을 강조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강한 선진공군 건설’을 위해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또한, “높은 계급과 직위에는 그에 따르는 엄중한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모든 지휘관의 숭선수범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인도네시아 공군 작전참모부장 접견



이영수 참모총장은 11월 22일(수) 공군본부에서 인도네시아 공군 작전참모부장 밉깃 트리보오 소장을 비롯한 대표단을 접견하고 양국의 국방 및 방산 협력 발전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어서, 대한민국 공군과 인도네시아 공군은 '공군 대 공군 회의'를 갖고 양국 공군의 지속적인 협력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대비태세 점검 및 장병 복무여건 개선 현장지도



이영수 참모총장은 11월 2~4주, 경기도·경북·강원도 등에 있는 미사일방어부대·관제부대 등을 방문해 장병 복무여건 개선 및 대비태세 점검을 위한 현장 지도를 시행했다. 참모총장은 장병들과 함께 부대 내 복지시설을 돌아보며 부족하거나 필요한 것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폈으며, 초급간부 등의 장병과 소통간담회 및 오찬을 함께하며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경청했다.



공군시험평가단

공군시험평가단 창설식

공군시험평가단 창설식이 11월 1일(수), 사천기지에서 공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 주관으로 거행됐다. 시험평가단은 항공우주전투발전단 시험인증처와 제52시험평가전대가 통합한 부대로, 공군 유일의 시험평가¹⁾·감항인증²⁾ 전담부대다.

- 1) 시험평가: 특정 무기체계가 기술적, 운용·관리적 측면에서 요구조건을 충족하는지 검증하는 것
- 2) 감항인증: 항공기가 비행 안전에 적합하고 성능과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음을 인증하는 것



제3훈련비행단

사랑의 연탄 나눔을 위한 자선 바자회

제3훈련비행단은 11월 6일(월), 사랑의 연탄 나눔을 위한 자선 바자회를 열었다. 자선 바자회는 11월 1일(수)부터 11월 3일(금)까지 평소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기증받았으며, 수익금은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부할 예정이다.



제15특수임무비행단

사랑의 김치담그기 봉사활동

제15특수임무비행단 부사관단 20여 명은 11월 18일(토), 경기도 성남 분당구 대광사에서 사랑의 김치담그기 봉사활동을 했다. 김치를 담그며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인 김장의 의미를 되새기고, 연말을 맞아 취약계층에게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제19전투비행단

'23-2차 전투태세훈련(ORE)

제19전투비행단은 10월 30일(월)부터 11월 2일(목)까지, '23-2차 전투태세훈련을 했다. '23년 Vigilant Defense와 연계해 24시간 항공작전 수행을 통한 전시 임무 및 지속 작전 수행 능력 강화와 불특정/변칙적 상황의 기지방호훈련을 통한 위협대응 능력 향상 등 평시 결전 태세 및 전시 전투준비태세 확립을 목표로 훈련했다.



제3미사일방어여단

정신전력 OX 퀴즈대회

제3미사일방어여단은 10월 30일(월)부터 11월 6일(월)까지 예하 미사일방어부대를 순회하며 OX 퀴즈대회를 열었다. 역동적으로 정보를 수용하는 데 익숙한 초급간부와 병의 세대 특성을 고려해 기획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국군의 창설, 대한민국 공군 창설과 김영환 장군, 北 공중위협(항공기·무인기·미사일) 특성을 주제로 출제했다.



제38비행전대

한미연합 대테러 훈련

제38비행전대는 11월 16일(목), 美 제8전투비행단과 한미연합 대테러 훈련을 했다. 훈련은 각종 탄약을 대규모로 보관하는 공동 탄약창에 비인가 소형 무인기와 거동수상자 침입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훈련을 통해 한미 군사경찰 장병들의 임무 수행 역량을 끌어올리고, 기지 생존 가능성을 극대화했다.



슬기로운 장병생활

사람을 얻는 지혜



장박원 前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고려대학교와 동 대학원에서 영문학을 전공했다. 1992년 공군 학사사관후보생 90기로 임관해 공군사관학교에서 3년간 영어 교관으로 근무했다. 1995년 매일경제신문에 입사해 산업부와 정치부, 국제부 기자, 중소기업부 부장을 거쳐 논설위원을 역임했다.

얼마 전 지인 한 분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단독방에 공유했다. 조선왕릉을 100회 답사하며 정리한 글이라고 했다. 내용은 격언 모음이다. 고즈넉하고 유서 깊은 왕릉을 거닐며 떠올랐던 단상을 그때그때 한 문장으로 요약한 것인데 의미심장한 메시지가 많이 눈에 띄었다.

“부귀와 행복은 한 그릇에 담기 어렵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돈과 명예에만 매달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불행에 빠지는 일이 종종 생긴다. 돈을 벌기 위해,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 전력투구하다가 건강을 해치고 인간관계마저 파탄 내는 이들을 많이 본다. 상속 재산을 가지고 싸우는 형제자매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가. 이런 문장도 귀에 속 박힌다. “온화하고 겸손하면 누구나 좋아한다. (반면) 성정이 거칠면 주변이 황폐해진다.” 정말 그렇지 않을까. 자신을 낮추고 배려가 깊은 사람 곁에는 많은 친구가 모이기 마련이다. 반대로 성격이 까칠하고 오만한 이들 옆에는 그에게 뉘끼를 얻으려는 아부꾼이 꼬일 수는 있으나 진정한 친구는 점점 멀어지기에 십상이다. 그러니 주변이 황폐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공직자인 우리 장병들이 마음에 새겨둬야 할 격언도 있다. “공과 사가 섞이면 범죄가 된다.” 두말할 나위 없는 명언이다. 그러나 지인이 전한 삶의 지혜 중 가장 공감한 말은 이거였다. “사람을 만나는 게 행복과 불행의 70%를 좌우한다.” 사실 인간관계는 70% 이상일 수 있다. 어떤 친구나 동료,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우리 삶은 완전히 바뀐다.

많은 이가 추천하는 자기 계발서 중에 『사람을 얻는 지혜』라는 책이 있다. 저자인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17세기 스페인에서 태어난 예수회 사제였다. 그의 저작들은 400년이 흘렀으나 여전히 사람들의 심금을 울린다.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발타자르를 ‘유럽 최고 지혜의 대가’라며 극찬했다. 그는 아주 쉬운 표현으로 보편적 진리를 담아낸다. 특히 기발한 비유가 인상적이다. 첫 장 ‘고마운 사람보다 필요한 사람이 되어라’에 나오는 한 대목부터 눈길을 사로잡는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물로 목을 축이고 나면 자신의 갈 길을 가고, 아무리 맛있는 오렌지도 알맹이를 먹고 나면 껍질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듯 의지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나면 예의도, 존경도 사라지게 된다.”

지나친 호의가 독이 될 수 있다는 교훈도 멋진 비유로 표현했다. “신은 자신의 조각상을 만든 조각가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 원수를 만드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설명한 대목도 설득력이 있다. “모든 사람의 친구가 될 수는 없으나 누구나 적이 될 수 있다. 제우스의 보호를 받았던 독수리조차도 딱정벌레와 다툼 날부터는 단 하루도 안심하고 쉬지 못한다.” 기다림과 인내의 미덕에 대해선 이런 비유로 메시지의 전달력을 높였다. “시간이라는 목발은 헤라클레스의 무쇠 몽둥이보다 더 큰 능력을 발휘한다. 신은 회초리가 아니라 시간으로 인간을 단련시킨다. 흙탕물은 손을 대면 흔탁해지고 가만히 두면 저절로 맑아진다.” 자신에 대한 불신으로 결단을 내리지 못할 때 이 대목을 읽으면 힘이 될 것이다.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행동하라. 나아가

마음이 강력하게 지시하는 대로 따르라. 우리의 마음은 가장 중요한 것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절대적인 신탁이다.”

발타자르의 지혜는 아이러니하게도 지혜롭지 못한 시대의 산물이다. 세상이 불안정하고 불의하다 보니 안전하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고민했다. 그는 1601년 태어났다. 당시 스페인은 유럽 최대 강국이었으나 왕실과 지도층의 무능력과 부정부패로 몰락의 길을 걷고 있었다. 그가 몸담고 있었던 교단도 마찬가지였다. 사제들 사이에도 권력 투쟁이 심했다. 이 때문에 심한 마찰과 갈등이 빚어졌다. 발타자르가 목격한 사회는 선한 사람이 손해를 보고 진실이 거짓에 밀려 탄압을 받는 곳이었다. 모리배*들은 아침과 속임수로 높은 자리에 오르고 성실하고 정직한 이들은 인정받지 못했다. 이처럼 가치가 전도되고 혼란한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선 비상한 지혜가 필요했다.

‘지혜로운 인생 설계의 기술’에 대한 발타자르의 글을 소개하며 지난 1년간 월간 『공군』의 ‘슬기로운 장병생활’ 코너를 통해 만났던 선후배 공군 장병들과 작별 인사를 고하러 한다. “아름답고 풍요로운 삶을 위해 인생 1막은 죽은 사람들과의 대화를 즐겨라. 인생 2막은 살아있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세상의 좋은 것을 즐겨라. 인생 3막에는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서 보내라. 마지막 순간에 행복한 철학자가 되는 것만큼 좋은 마무리는 없다.” 여러 번 음미하며 읽다 보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코너에 글을 쓰는 내내 행복했다. 독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

* 모리배(牟利輩):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자신의 이익만을 꾀하는 사람 또는 그런 무리

한 달, 한 권

진정한 기적이란.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진아 작가

고등학생들과 수다 떠는 재미에 학교에 가는 국어교사. 혼자 책 읽는 것도 좋아하지만, 책 이야기로 다른 사람과 연결되는 것을 더 좋아한다. 『엄마만으로 완벽했던 날들』, 『쓰다보면 보이는 것들(공저)』를 출간했다.

12월, 벌써 올해의 마지막 달이네요. 바람의 온도가 낮아지고, 낮의 시간이 짧아지니 자연스레 몸과 마음이 움츠러듭니다. 주변을 돌아보기보다는 내 걸음을 재촉하기 바빠져요. 그래서인지 이런 계절이 오면 일부러라도 찾아 읽게 되는 따뜻한 소설 한 편이 있습니다. 올해의 마지막 책으로 소개해 드릴 소설,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입니다. 출간된 지는 이미 십 년쯤 됐지만, 매력적인 인물들과 탄탄한 줄거리로 여전히 많은 분께 사랑받는 소설입니다.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은 추리와 판타지 요소를 두루 갖춘 소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포나 스릴러물은 아니고, 따뜻하고 훈훈한 이야기예요. 연말, 그중에서도 ‘기적’이라는 단어와 잘 어울리는 크리스마스 시즌에 읽으면 더없이 좋은 소설이지요. 500쪽 가까이 되는 두꺼운 소설이지만, 한 번 읽기 시작하면 중간에 덮을 수 없을 만큼 놀라운 흡입력을 지닌 소설이기도 합니다.

이야기는 세 명의 남자(쇼타, 아쓰야, 고헤이)가 한 폐가(나미야 잡화점)를 찾아 들어가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폐가라고 하지만 으스스한 분위기와는 거리가 멀어요. 오히려 이유 모를 따스함과 신비로움을 품은 곳입니다. 세 남자는 어떤 죄를 저지르고 도주하던 중에 차가 고장 나, 어쩔 수 없이 잡화점에서 하룻밤을 묵게 됩니다. 셋은 해가 뜰 때까지 버티기로 하는데, 갑자기 잡화점 안으로 편지 한 통이 날아듭니다.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 뽀얀 먼지로 뒤덮인 잡화점에, 그것도 자정이 훨씬 지난 밤에 편지라니요. 경찰일까 긴장하던 것도 잠시,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셋은 편지를 뜯어보고 맙니다. 믿을 수 없지만 그 편지는 과거에서 온

고민 상담 편지였어요. 알고 보니, 사십여 년 전, 이 잡화점은 익명의 고민 편지에 성실한 답장을 보내 주던 나미야 할아버지가 운영하던 곳이었어요. 과거에서 현재로 날아온 편지를 보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머뭇거리던 것도 잠시, 답장을 기다릴 편지의 주인을 떠올리며 세 남자는 서툰 답장을 보내게 됩니다.

그 뒤로도 발신인이 다른 편지가 계속 도착합니다. 처음에는 장난스러웠지만, 시간이 갈수록 세 사람 모두 고민 상담에 진지해져요. 사랑과 꿈 사이에서 고민하는 편지에,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망설이는 편지에, 돈을 벌기 위해 부적절한 일을 하겠다는 편지에, 세 남자는 진심 어린 답장을 씁니다. 사실 세 남자는 ‘환광원’이라는 아동보호 시설에서 함께 자란 친구 사이인데요. 이십 대인 셋은 변변한 일자리도 없이 먹고 살기 힘든 날들을 보내던 중, 환광원이 돈 많은 누군가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이에 분노해 그 돈 많은 누군가의 별장을 알아내 도둑질을 하고 도망치던 중, 우연히 나미야 잡화점에 들른 것이었어요.

한 번도 누군가에게 도움 되는 일을 해본 적 없던 셋은, 나미야 잡화점에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고 답장도 써주며 처음으로 남에게 도움 되는 일을 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뿌듯함과 충만함을 동시에 느껴요. 그 조언이 적절했는지, 적절하지 않았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민 상담을 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만의 답을 이미 갖고 있었고, 누군가에게 고민을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홀가분해 했으니까요.

이 소설이 연말에 잘 어울린다고 생각한 것은 바로 이 점 때문입니다. 내세울 것 없는 세 남자는 나미

야 잡화점에서 타인의 고민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며 자기 삶의 희망을 발견합니다. 오래전 나미야 잡화점에 고민 편지를 보냈던 사람들은 그 편지가 미래로 날아갔다는 것도 모른 채, 세 남자의 서툰 거친 답장에 위로받고 나아갈 용기를 얻어요. 이토록 따스하고 훈훈한 이야기를 읽다 보면, 세상은 여전히 살만하다고, 나도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지도 모른다고, 어딘가에는 내 사사로운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줄 누군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나미야 잡화점에서 일어난 ‘기적’은 어쩌면 시간을 초월해서 편지를 주고받는 일 자체가 아닐지도 몰라요. 타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진심으로 반응하는 일. 그로써 위로받고 희망을 되찾는 일. 그것이 진정한 기적일지도 모릅니다.

한 해가 이렇게 저물어 갑니다. 날씨는 매섭지만, 마음만은 기적처럼 따뜻한 날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에게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과 같은 기적이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올해의 마지막 안부를 전합니다. ☐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하گی시노 케이키 지음 | 현대문학 펴냄

영화로운 나날

여전히 아름답지만, 더욱 난해해진 세계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송희운 마케터

워킹맘으로서 일과 육아 모두 최선을 다하고 싶은 사람. 일과 육아 사이에서도 계간지 「CAST」와 '브런치'에 꾸준히 영화 관련 글을 게재하며 영화에 대한 열정을 이어 나가고 있다.

10년 만에 개봉하는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신작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가 드디어 국내 개봉했다. 지난 7월 일본에서 개봉할 때부터 국내 개봉이 확정되기 전까지 영화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드러나지 않았기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하면서 기대되는 작품이었다. 국내 개봉이 확정돼 영화를 보고 나왔을 때, 처음 느꼈던 소감은 상당히 난해하다는 것이다.

화재로 어머니를 잃은 뒤 아버지와 함께 새어머니가 있는 곳으로 떠나게 된 마히토. 새로운 곳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마히토 주위를 이상한 왜가리가 맴돌고, 마히토는 집 근처의 정체를 알 수 없는 커다란 탑에 계속 끌린다. 그러던 어느 날 새어머니 나츠코가 탑이 있는 숲속으로 사라지는 걸 보고, 마히토는 왜가리의 안내에 따라 집을 돌보는 사람 중 한 명인 키리코와 함께 새엄마를 찾으러 탑으로 들어간다.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신작은 전반적으로 상당히 불친절하다. 마히토가 현실과 동떨어진 탑의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는 이야기까지는 관객들이 어렵지 않게 따라갈 수 있으나 현실과 다른 탑으로 들어가는 순간, 이 이야기가 어떤 것을 말하고자 하는지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워진다. 탑 속에서 전개되는 이야기들은 마치 꿈속의 이야기처럼 의식의 흐름대로 흘러가는 느낌이다.

영화에서 계속 암시한 것처럼 탑은 마히토의 증조할아버지인 큰할아버지가 자신이 살던 세계를 버리고 하늘에서 떨어진 운석의 힘을 빌려 창조한 세계다. 겉으로 보기에겐 평화롭고 신기해 보이는 세계지만, 사실 모순으로 가득 차

있다. 이 세계에 갇힌 펠리컨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사냥할 수 있는 물고기가 없어 하늘로 승천하려는 와라와라*를 잡아먹어야만 살 수 있다. 또한, 이 세계 속에 사는 검은 인간들은 자신의 힘으로는 다른 생명을 빼앗을 수 없어, 이 세계로 들어오면서 젊게 변한 키리코가 잡아 오는 물고기roman 배를 채울 수 있다. 즉, 생태계를 유지하면서 균형을 이루고 있는 현실 세계와 달리 큰할아버지가 만든 세계는 한쪽으로만 치우쳐진 굉장히 부조화한 세계인 것이다. 큰할아버지는 현실 세계와는 다른 자신만의 이상향을 만들고 싶어 현실에서 사라지고, 새로운 세계를 만든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세계는 현실과 다르지 않았다. 그곳은 생태계가 존재할 수 없었고, 잉꼬들이 모든 것을 지배하며 사람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세계가 됐다. 특히 이 잉꼬들이 마히토의 어머니인 히미를 잡아 큰할아버지와 협상하기 위해 데리고 갈 때, 선봉에 선 잉꼬 대왕을 잉꼬들이 찬양하는 듯한 모습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바깥 세계와 별반 다르지 않은 세계임이 드러난다.

큰할아버지는 운석의 힘으로 만들어진 세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후손인 마히토까지 불러냈지만, 마히토는 내재한 악의로 인해 그 세계를 이어받을 수 없음을 고백한다. 여기서 마히토와 큰할아버지는 대척점에 선다. 마히토는 어머니의 죽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현실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지만, 큰할아버지가 만든 환상의 세계에서 어머니를 만남으로써 자신이 살아갈 세계는 현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인다. 환상의 세계에서 자신의 삶을 유지하고 있는 큰할아버지와 달리 마히토는 자신의 악함을 받아들이고 어머니의 죽음을 비

로소 받아들임으로써 현실 세계로 나아갈 힘을 얻는다.

이렇듯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는 작품 속에서 여러 갈래로 해석될 여지가 많은 작품이면서 동시에 불친절한 영화다. 한 영화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이 마치 가시덩굴처럼 너무나도 얽혀 있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온전하게 와닿지 않는다. 그동안 수많은 명작을 만든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은퇴를 반복하고 다시 만든 작품이라는 점에서 큰 기대를 했으나, 다소 난해한 내용으로 기대에 못 미치는 아쉬운 작품이었다. 하지만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애니메이션 화풍을 좋아하고 지브리 작품 속에서 묘사되는 유려하고 아름다운 풍경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추천하고 싶다. ■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 와라와라(わらわら): 영화 캐릭터 중 하나로 이세계에 사는 영혼들이다. 눈, 입, 팔다리가 달린 귀여운 형상을 하고 있다. 일본어로는 무리지어 모이거나 뿔뿔이 흩어지는 모양을 뜻한다.

시와 비행하다

겨울나기*



강혜빈 작가

뉴노멀이 되고 싶은 양손잡이. 시를 쓰고 찍습니다. 2016년 <문학과 사회> 신인문학상 시 부문으로 등단했으며, 사진가 '파란피'로 활동 중입니다. 문예창작과 불문학을 공부하고, 다수의 문예지 및 잡지에 시와 에세이, 사진을 실었습니다.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 커다란 구름을 만들듯이, 희미한 빛들이 모여 어두운 귀퉁이를 밝게 비추듯이, 무지개가 나타날 때를 기다리며 몸을 숨기고 있듯이, 세상에 없던 빛을 나누고 싶습니다.

[시작노트]

어느덧 2023년도 끝자락에 다다랐다. 요즘 겨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시, 「겨울나기」를 던지시 건네본다. 이 시에는 이상한 희망을 느끼게 하는 구절이 있다. “다음 열차는 곧 도착해/ 다음 희망은 우릴 기다려줄 거고//그러니 서두르지 마”. 달리 용기를 주려던 건 아닌데 독자들은 힘을 얻는다고 한다. 희한하다. 월간 『공군』에서 1년 동안 시와 시작노트 연재를 이어왔다. 지면에서 시를 읽고 몇몇 장병들이 감상과 응원을 전해주기도 했다. 평소에는 접점이 없어 가닿을 수 없었던 공군 장병들에게 나의 목소리를 전했다는 것이 뜻깊고 기쁘다.

우리가 슬기롭게 겨울을 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겨울은 죽음에 가까운 계절. ‘나무의 종아리가 약동’하거나 ‘땀 흘리는 산책자’는 찾아볼 수 없지만 몸과 마음을, 나무와 강을, 세계를 뚫 뚫 열려버릴 수 있는 힘을 가진 ‘짧고 눈부신’ 계절. 겨울. 올해의 마지막 페이지에 서서 돌아본다. 서 있는 동안 찬바람이 코끝을 만지고 지나간다. 수족냉증이 있는 사람으로서 손발이 얼지 않도록 잘 보존하는 것이 겨울 나의 작은 목표다. 시의 화자처럼 만나고 싶은 사람을 꼭 만나게 되는 날을 기다리는 것이 또한 바람이다. 그리고 가족과 친구와 연인에게 자주 사랑한다 말하고 싶다. 얼어붙은, 굳어버린 마음을 다만 다정함으로 녹이는 힘을 가지고 싶다.

얼마 전, 겨울이 추워서 너무 싫다고 말하자 엄마는 대답했다. “겨울이 지나야 봄이 오지.”라고. 봄에 태어난 나는 봄을 기다린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은 어떤 겨울을 지나고 있는지 문득 궁금해진다. 당신과 다시 시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작고 귀여운 ‘눈송이’ 하나를 날려 보낸다.

* 강혜빈, 『미래는 허밍을 한다』 수록 (문학과지성사, 2023)

뚝섬에서 만나기로 한 사람은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어가

흐려지는 말끝처럼
눈이 내린다

*다음 열차는 곧 도착해
다음 희망은 우릴 기다려줄 거고*

그러니 서두르지 마

기다리는 자리엔 꽃집이 있거든
뿌영계 김 서린 유리벽 너머로
흰 그림자들 일렁이고

겨울의 빛은
물뿌리개를 들고 서성이지

문득
중요한 걸 놓치고 있던 생각이 들어

못 쓰는 침대 깎아
근사한 트리를 만들고 싶어

함께 누울 자리는 부족하고
기념하고 싶은 날은 늘어가지만

무릎을 안으면
둘이 된 것 같아
내일은 재미있는 일이 생길 것 같아

두려움 없이 나리는
마구 태어나고 조용히 사라지는
눈의 일생을 봐

누구도 내쫓지 않고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
안전한 집을 상상해봐

조금씩 발끝이 둔해지고

겨울을 사랑한 적 있거든
그렇지마는
그것도 한 때

나무의 종아리가 약동하는
땀 흘리는 산책자들의
여름을 생각해

멀리서 보면
모든 사랑이 그럴 듯 하잖아

동물의 털을 입고 걸어가는
대도시의 풍경

죽은 목도리를 두르고
예전에 죽은 친구를
저녁으로 먹는

영혼 위로 영혼이 쌓여
점점 더 똥똥해져서
털 많은 기계들로 진화하는
대도시의 풍경

*다음 열차는 곧 도착해
다음 희망은 우릴 기다려줄 거고*

그러니 서두르지 마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잊어버리고 만대도

문이 열리고
눈보라가 들이쳐

기다림에 지친 털 뭉치들은
도로 위를 펄쩍펄쩍 뛰어다녀

뚝섬에서 만나고 싶은 사람이
만났던 사람이 된다면 좋겠어

도시의 기다림은 짧고 눈부시잖아

그러니까 등 뒤에
따라붙은 눈송이처럼 ❄

TRENID

트 렌 드 가 보 인 다

인생을 바꿔주는 공간의 힘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부터 ‘내 방 꾸미기’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그전까진 인테리어나 홈스타일링이 이사할 때나 한번씩 고민할, 큰 비용이 드는 중요한 이벤트였을 것이다. 원룸, 오피스텔 또는 낡은 구옥(舊屋)까지. 자신의 스타일로 채운 사람들의 공간이 SNS에서 화제 되며, ‘내 공간’을 꾸미겠다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

공간은 나에게 어떤 변화를 줄까?

올해 초, 수년간 영화 제작에 지출만 들어가 달동네 꼭대기 낡은 빌라에 살던 한 독립영화감독이 있었다. 그는 거의 전 재산을 들여 영화 제작에 몰두하고 있지만, 수년째 끝나지 않다 보니 자신의 꿈인 영화 제작에 대한 회의감이 수시로 찾아온다고 했다. 집이자 작업실인 그의 공간은 길에서 주워온 책상, 중고나눔으로 받은 의자, 전 세입자가 두고 간 행거(hanger) 등으로 채워져 그의 절망을 보여줬다.

나는 지저분한 물건들을 정리하고, 어두컴컴한 침실을 옷방으로, 해가 잘 드는 옷방을 침실로 바꾼 뒤 비싸진 않더라도 단정한 가구들을 뒀다. 그리고 깨끗한 새 이불과 커튼을 달아 이전보다 생기 넘치는 공간으로 만들었다. 그는 끝내 마무리 못 짓고 있는 첫 장편영화의 완성에 대한 의욕이 다시금 샘솟는다고 했다. 얼마 전, 그에게서 그의 첫 장편영화를 올해 제28회 부산국제영화제에 출품해 데뷔했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다. 공간이 주는 힘은 이렇게나 놀랍다.

사실 나의 대학 시절도 이 영화감독과 다르지 않았다. 실내 건축을 공부하면서도 ‘부유층의 전유물이겠거니’ 생각했었다. 내 의지로 공간이 채워지면서 비로소 나 자신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고, 그 결과 지금의 내 직업을 선택하게 됐다. 나도 일찍이 조금씩이나마 내 공간을 채길 줄



알았더라면 인생의 흐름이 달라졌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종종 한다. 그 삶이 지금보다 더 나아갈 것이란 아쉬움은 없지만, 지나온 시간 속의 수많은 기회와 선택에 분명히 영향을 줬으리라 생각한다.



독립영화감독의 작업실 중 영화 시청 공간

어디서부터 공간을 꾸며야 할까?

내 방을 깔끔·단정하게 바꾸기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은 수납이다. 자주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은 문이 달린 수납장이나 수납 상자에 넣어 보관하자. 문만 닫으면 깔끔해진다. 콘솔로도 활용할 수 있는 높은 수납장이나 와이드 서랍장을 추천한다. 정리하고 수납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조금 귀찮더라도 나를 한 번 더 챙기는 과정이라고 여겨야 한다. 다음은 패브릭(직물)에 변화를 주는 것이다. 특히 이불을 바꿔보자. 요즘은 가격경쟁이 가열돼 좋은 질의 예쁜 이불을 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가성비 좋은 이불을 사서 덮다가 이사할 때 한 번씩 교체해주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다. 침구는 방에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만큼 그 공간의 분위기에 큰 영향을 끼친다. 다양한 색채의 이불과 베개, 매트리스 커버 등을 믹스매치해서 꾸미는 것이 트렌드다.

침구 다음으로 공간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것은 조명이다. 곳곳에 조명을 배치해보자. 원룸엔 조명 1~2개로 충분하다. 조명은 전구만 교체하면 평생 사용할 수 있는 소품이라 개인적으로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이렇게 공간을 꾸미는 것에 흥미가 생겼다면 커튼·발 매트·액자·플랜테리어¹⁾·데스크테리어²⁾ 등 내 공간을 좋아하는 것들로 채워가며 '나를 위한 공간'의 의미를 발견하고 변화하는 삶을 느껴보길 바란다. [☞](#)



파란색을 좋아하고 휴식을 위한 언니의 방(위)과 보라색을 좋아하고 공부를 하는 동생의 방(아래) 사진

1) 플랜테리어(Planteria): 식물(Plant)과 인테리어(Interior)의 합성어로, 식물이나 화분을 소품으로 포인트를 주며 공기정화·심리적 안정 효과를 얻을 수 있다.

2) 데스크테리어(Deskterior): 책상(Desk)과 인테리어(Interior)의 합성어로, 사무실 책상위를 꾸미는 것을 말한다. 집보다 사무실에 오래 머무르는 사무실 공간을 자신의 취향의 맞게 바꿈으로써 업무스트레스를 줄이거나 심리적 위안을 받기 위해 이뤄진다.



한상훈(Harry) 홈스타일리스트

인테리어 플랫폼 <오늘의 집> 소속 공간디자이너로, 오늘의 집 유튜브 구독자들에게 '민보해(민고 보는 해리님)'로 불린다. 국내 가구 브랜드 'dodot'의 가구디자이너 겸 MD(상품기획자), 사무 가구 기업 'FURSYS' 환경컬설트 경험은 바탕으로 과거 집 꾸미기 채널과 현재 오늘의 집 유튜브 채널에서 인테리어 콘텐츠를 통해 다양한 공간 스타일링 노하우를 전달하고 있다. (@stylist_harry)

생각하는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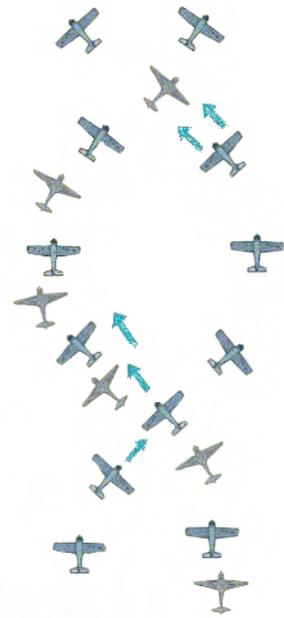
타치 위브(Thach Weave)

1941년 12월 7일 일본의 기습적인 진주만 공습으로 시작된 태평양 전쟁에서 미국은 개전 초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선전포고도 없었던 상황에 미군은 일본군에게 일방적인 공격을 받고 전력 대비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수적 열세 상태에서 전투에 돌입해야 했습니다. 이는 태평양의 하늘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일본은 가볍고 날렵한 기동성을 가진 A6M '제로센' 전투기를 주력으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빠른 속도로 공격해오는 제로센 전투기에 미군은 대응하기 힘들었습니다.



이때 등장한 전술이 바로 '타치 위브(Thach Weave)' 전술입니다. 미국 해군 항공대 소속의 비행대를 지휘했던 존. S. 타치(John. S. Thach) 소령은 부대원들이 성능적, 수적 열세를 극복하고 전투에서 승리할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연구 끝에 조종사들의 팀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공중전 전술, 타치 위브를 개발했습니다. 타치 위브는 두 대의 전투기를 하나의 팀으로 편성하여, 적군 전투기가 아군 전투기의 꼬리에 붙어 공격을 시도하면, 팀을 이루고 있는 다른 전투기가 적군 전투기 시야의 사각지대로 날아들어 공격을 가해 적군 전투기를 격퇴하는 전술입니다. 타치 위브를 활용해 미군은 주력 전투기인 F4F 와일드캣 전투기 4대로 제로센 전투기 10대를 물리치는 전과를 올렸고, 이를 시작으로 그동안의 열세를 극복하고 제공권을 장악해 태평양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타치 워브 전술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일본군 전투기 제로센과 비교하면 미군 전투기 와일드캣이 훨씬 더 견고한 소재로 만들어졌다는 점, 제로센의 무장 화력이 매우 약했던 점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요인은 미군 조종사들이 지닌 끈끈한 동료애와 팀워크였습니다. 타치 워브 전술은 아군 전투기가 적 전투기를 격추해줄 것이라 믿으며 자신의 꼬리를 적에게 내어줄 수 있는 동료 간의 신뢰와 팀워크가 없었다면 이뤄질 수 없는 전술입니다. 당시의 미군 조종사들은 수많은 훈련과 연습을 통해 정확한 위치와 타이밍에 맞게 모두가 움직일 수 있는 동료 의식과 팀워크 정신을 일궈냈습니다.



전쟁의 승리를 가져왔던 타치 워브 전술, 획기적인 전술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를 완벽히 수행해 낼 수 있다는 동료들 간의 신뢰 덕분이었습니다. 수많은 훈련과 연습을 통해 다져진 신뢰와 팀워크는 자신의 꼬리마저도 내어줄 수 있을 정도로 굳건했습니다.

공군인 여러분! 작전의 성공, 더 나아가 빈틈없는 영공방위태세는 굳건한 팀워크와 신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공군인의 편지

작별 인사

상병 김종혁

글 쓰는 것을 좋아하는 언론학전공 휴학생,
장래에는 무엇이든 사람들과 소통하는 일을 하고 싶다.

이곳에 온 지 1년이 되어갑니다. 처음 발 디딜 때의 겨울을 지나 따스하고 치열했던 봄, 여름. 그리고 금세 다시 차갑습니다. 계절의 변화는 시간이 흘렀음을 새삼 알려주지만, 그보다도 아련한 건 사람들입니다. 지나가는 계절에는 어떠한 후회나 아쉬움도 없습니다. 내년이면 여기에 다시 여름이, 어쩌면 올해보다도 무척 뜨겁게 찾아오리란 것을 아니까요. 하지만 이곳을 한 번 떠난 사람은 계절과는 사뭇 다르게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 사실은 저 또한 이곳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려주지만 왜인지 아쉽고 허무한 기분만 듭니다.

선임들의 진심 어린 조언을 들으며 하루가 다르게 적응해가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제 눈에 그들은 모르는 것이 하나 없었고, 어떤 문제든 노련하게 해결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능숙함에서 오는 자신감과 여유로운 모습은 학창시절의 존경하는 선생님과 선배 그사이 묘한 지점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그늘에 기대어 무언가 하고 싶은 말도 마음껏 하고, 생각나는 대로 일을 벌였습니다. 덕분에 지난 몇 개월간 많은 문제를 순조롭게 해결하고, 더 나은 생활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둘씩 그늘이 걷히고 있습니다. 이등병 때 상담받던 날이 꼭 어제 같은데, 신병들의 이야기를 끄덕거리며 듣는 제 모습이 아직 낯섭니다. 파란색의 상담 병사 배지가 생각보다 무겁다는 사실을 알 때쯤, 그간의 일들이 모두 제 덕이라고 착각한 건 아닌지 드디어 돌아봅니다. 저는 그저 뒤에서 도왔을 뿐 우여곡절

을 마주할 때마다 무언가 희생하며 나선 건 그들이었으니까요. 제일 앞에서 묵묵히 버텨 주던 그 자리에 끝내 제가 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문득 아무런 준비 없이 성인이 되어버린 2021년의 봄이 생각납니다. 지금과 다를 게 없습니다. 세상이 쉽지만 했는데,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어쩌다 보니 여기에, 별거 아닌 내가 우뚝 서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굳게 믿고 있습니다. 2021년에도, 올해도, 그리고 앞으로도 줄곧 그들은 드리웠다 없어지기를 반복하겠지만 빛이 내리쬐는 곳으로 가려면 결국 그늘을 떠나야만 한다는 사실어요. 지나버린 이들에게 이제야 훌가분한 작별 인사를 보냅니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책 읽는 공간 멋진 신세계를 위하여

이병 고현

'그림에도 불구하고'를 좌우명으로 삼고 살아간다.
늘 도전을 꿈꾸면서 자만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다.

새까만 밤하늘을 배경으로 유난히 하얗게 보이는 눈은 소복이 쌓여 도로와 가로수를 장식하고, 불 빨강계 물들인 사람들로 번잡한 거리에 즐비한 가게들의 노란 조명은 길 거리를 따뜻하게 칠한다. 어딘가에서 들릴 듯 말 듯 흘러 나오는 캐럴은 왓슨의 마음을 설레게 한다. 12월에는 모두가 고대하는 날이 있다. 바로 성탄절이다.

기대의 이유는 가지각색이리라. 누군가는 사랑하는 연인 혹은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또 누군가는 성탄절의 연말 분위기가 좋아서. 각자 이유를 품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린다.

우리는 성탄절이 본래 기독교적 의미가 큰 것을 안다. 하지만 대부분 성탄절의 '종교적이지 않은' 면모를 더 선호하는 듯하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말은 결코 아니다. 그보다는 분명 옛날에는 종교적 색채가 절대적이었을 성탄절에 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핑계 삼아, 사회의 더 커다란 격동들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성적으로 자유롭고, '소마'라는 약물로 손쉽게 쾌락과 만족을 얻을 수 있으며, 태어날 때 주어진 사회적 계층에 만족하기에 모두가 '행복'한 사회. 올더스 헉슬리는 1932년이 작품을 통해 기술의 발전으로 찾아올 유토피아를 그려냈다. 최근 급격하게 변해가는 한국 사회는 그와 비슷한 부분이 많다. 성적 개방성이 높아가고 있고, 스마트폰을 통해 도파민을 끊임없이 맛보기도 쉽다. 또한, 꿈을 포기하고 주어진 환경에 불가피하게 만족할 수밖에 없는 'N포 세대'의 비율도 늘고 있다. 이런 한국의 모습이 헉슬리의 유토피아와 비슷해 보이면서도 단어의 본래 의미와 거리가 멀어 보이는 것은 어째서일까.

'배고픈 인간이 배부른 돼지보다 낫다.' 책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소크라테스의 한마디가 떠오른다. '야만인'으로 표현되는 구인류 존은 저열한 쾌락으로 점철된 신인류 사회 속에서 홀로 자유와 낭만을 부르짖으며 고뇌한다. 이는 갈수록 인스턴트화 되어가는 세상 속에서 진실로 중요시해야 하는 것에 대해 고찰할 수 있게끔 해준다. 헉슬리는 야만인을 통해서 야만과 낭만은 본질에서 같으며, 삶의 의미를 끊임없이 고뇌하고 그 과정에서 느끼는 격정적인 감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곧 행복한 삶이라 말하는 것만 같다. 우리는 평면적인 쾌락을 행복이라 칭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이제 곧 성탄절이다. 금세 새로운 해가 찾아올 테다. 우리는 점차 '신인류'가 되어갈지도 모른다. 만약 그런 흐름에 편승하길 원치 않는다면, 성탄절부터라도 쾌락은 잠시 치워두고 진정으로 열망하는 것에 몰두해 보는 것은 어떨까. 가족, 친구, 연인, 꿈 등 무엇이든 좋다. 내면의 열정을 따라가다 보면 자신의 삶을, 나아가 우리 사회를 낭만과 행복으로 채워나갈 수 있으리라. ■



멋진 신세계, 올더스 헉슬리 지음 | 소마 페널티

토닥토닥 기적을 연주하는 피아니스트란 꿈을 향해

저는 무(無)안구증 시각장애인이라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늘의 하얀 구름과 비 온 뒤 생기는 무지개, 사람들이 말하는 바다의 풍경, 높은 산의 정상에 올랐을 때 벽차오르는 감정을 저는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 무척 궁금합니다.

세 살 때 엄마의 노랫소리를 피아노로 치면서 제 능력을 알게 됐습니다. 한 번 들은 곡을 연주할 때의 사람들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다섯 살 때 예능 프로그램 <스타킹>에 '5살의 천재 모차르트'로 출연하면서 전 유명한 아이가 됐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행복하기 보다는 두려웠습니다. 보이지 않는 현실에서 다가오는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송 출연, 공연 요청, 저를 알아보고 반가워하는 사람들... 그저 한가운데 서서 어디로 향해 가야 할지 몰라 방황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피아노는 제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선생님의 가르침 없이 듣는 소리만으로 저의 생각과 감정을 담아 연주했지만 그래도 좋았습니다. 피아노 의자에 앉아 연주할 때는 세상과 소통하는 것 같았고, 제가 최고인 것만 같았습니다.



2007년 SBS <스타킹>에 출연했던 5살의 유예은 양

'장애'라는 특수한 상황에 일반 학급에서 듣는 수업은 많은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학교라는 큰 건물을 더듬거리며 걸어 다닐 때는 무서움이 앞섰으며, 시험 점수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학창시절을 즐겁게 보낼 수 있던 것은 좋은 선생님, 친구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도 입시는 난관이었습니다. 수능이라는 커다란 벽, 콩쿠르 대회보다 더 치열한 입시 실기 연주... 든든한 조력자이면서 장애인도 할 수 있다는 꿈을 계속해서 심어주셨던 아빠의 죽음과 앞친 데 덮친 격으로 이어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고등학교 생활은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학교생활이 어려웠고, 대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보도 부족해 입시도 실패했습니다. 1년을 다시 준비해 지금은 한세대학교 음악학과 피아노전공 2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저에게 꿈은 제가 존재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눈으로 보는 세상은 아니지만, 피아노 연주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런 저의 연주를 듣고 응원해 주시며, 제 연주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위해 저는 꿈을 향해 계속해서 도전해 기적을 연주하는 피아니스트가 될 것입니다. 



유예은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다큐멘터리영화 「기적의 피아노」와 책 「기적의 피아노」의 주인공으로, 2007년 SBS <스타킹>에 출연하면서 유명해졌다. 한세대학교 음악학과 피아노전공 2학년에 재학 중이다. 기적을 연주하는 꿈을 품고 피아노를 연주하며 세상과 소통하고 있다.

마음의 소리

김규비

gyubiki**@gmail.com

서울 ADEX 2023 퍼블릭데이에 다녀왔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간 에어쇼는 많은 추억을 떠올리게, 또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해줬고, KF-21 보라매를 비롯해 최신 전투기와 비행기들, 방산산업과 공군의 밝은 미래를 보여주는 듯해 무척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블랙이글스 팀의 멋진 곡예비행과 사인회에 정말 감사합니다. 하늘이프렌즈 최고! 늘 응원하겠습니다.

AF

‘서울 ADEX 2023’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관람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년 만의 에어쇼가 또 다른 좋은 추억이 되셨기를 바라며, 월간 『공군』 구독자분들 항상 응원합니다! 파이팅!

변은정

bpsung**@naver.com

〈슬기로운 장병생활〉의 세 골퍼 이야기는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역경을 견디는 힘을 키우는 데 본보기가 될 글이었다. 명상으로 상처와 트라우마를 극복하거나, 과거의 성공은 잊고 꾸준히 연습해 다시 우승한 이야기는 장병들에게 큰 울림이 될 듯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무수히 많은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으로 좌절할 수도, 희망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장병들이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에서 다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끈기를 갖고 살길 바랍니다.

AF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선택이라고 합니다. 매 순간 크고 작은 선택의 갈림길에 섭니다. 스스로의 선택에 책임지고, 바른 선택을 고심하는 공군인이 되겠습니다.

이유주

sei**@naver.com

비행기를 너무 좋아해 비행기를 타고 싶어 여행을 가고, 승무원의 꿈을 이루지 못한 저는 29살 직장인입니다. 소 개팅 약속이 잡힌 날 블랙이글스 에어쇼가 보고 싶어 약속 장소를 한강 공원으로 정했고, 그분 얼굴보다 블랙이글스 에어쇼를 더 많이 보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그분과 함께 에어쇼와 아텍스 등을 같이 보러 다니고 있습니다. 항상 멋진 공군 선생님들! 존경하고 응원합니다.

AF

그분은 블랙이글스 에어쇼를 보며 반짝이는 이유주 님을 보고 계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공군 행사로 예쁜 추억 많이 만드시며 더 좋은 인연으로 발전하길 바랍니다.

접수
방법



마음의 소리

월간 『공군』 홈페이지(afzine.co.kr) <독자의견>에 업로드
매월 15일까지 / 250자 내외 /
기념품 수령을 위한 주소·연락처 기재 필수

공군인의 편지

공백포함 1,250자 내외
수신인 성명·주소·연락처 기재 후 E-mail 전송
인트라넷: ekgald123@af.mil / 인터넷: afzine@korea.kr



구독문의 QR코드



독자의견 QR코드



546

